

IFR 5th

리서치 보고 서

인도 바라나시 갠지스강 지역
리서치 및 사역보고

목 차

제 1 장 India Field Research 개요	
.....	3
제 2 장 지역 보고서	
.....	6
제 3 장 사역 보고서	
.....	29
제 4 장 리서치 보고서	
.....	71

제 1장

리서치 개요

IFR 소개

India Field Research는 한동 아시아 지역 연구소(CAAS)의 산하의 지역 현장 조사팀으로 특별히 인도에 대한 도시 또는 종족 조사를 통하여 그들의 영적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보고함으로써 인도의 복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한동대학교 학생 선교 공동체이다.

IFR의 비전

Worshiper(예배자)

Field Researcher(현장 전문가)

Reporter(보고자)

Intercessor(중보자)

IFR의 구성

지 도 교 수	김대식(경영경제)
지 도 간 사	김수진
협 력 선교사	김바울(텔리), 이경호(캘커타)
I F R 1 기	김군오, 이경탁, 이선연, 김대은, 이재권, 원성연, 김범송
I F R 2 기	구선미, 김진홍, 김지성, 손혁준, 박청해, 최훈
I F R 3 기	정난영, 권정하, 최인섭
I F R 4 기	김경하, 김지원, 김요셉, 도란

IFR 5기 훈련팀원 소개

지 도 교 수	김대식(경영경제) : 017 - 257 - 4680 / kimds@handong.edu
간 사 (기도부)	김수진 : 019 - 662 - 7967 / jewel-j@hanmail.net
디렉터 (총무부)	도란(국제어문 03) : 011 - 9280 - 9094 / rani94@hanmail.net
섬김이 (자료부)	권정하(법학부 01) : 010 - 6249 - 0552 / esther4204@nate.com
기 장 (예배부)	양영필(경영경제 98) : 016 - 358 - 5820 / star0327@nate.com
훈련생 (미디어)	이요섭(경영경제 99) : 016 - 9299 - 2310 / archer80@naver.com
훈련생 (기도부)	곽미애(경영경제 02) : 011 - 9372- 2488 / inskyblue@hanmail.net

IFR의 미션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재심이로다
< 시편 22편 27, 28절 말씀 >

훈련 내용

학기중훈련

- 학기 중 매주 목요일 강의
- 매일 10시 기도회, 말씀 양육
- 매주 월요일 열방예배
- 지역연구모임
- 리서치실습

방학중훈련

- 아웃리치 전후 10일 합숙
- 3주간의 아웃리치

리서치의 목적 및 필요성

인도 힌두교의 7대 성지 가운데 으뜸으로 꼽히는 바라나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가지 제의(祭儀) 중에 갠지스 유역에서의 ‘상(喪)’제의를 통하여 힌두교가 인도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여 인도 복음화 전략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지역 및 대상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바라나시 갠지스 유역 강가 및 화장터

조사 기간

2005년 1월 8일 ~ 17일 (9박 10일간)

조사 인원

6명 : 간사 1명, 학생 5명

조사방법

예비조사 - Web, 국회도서관, 선교단체 조사파일, 인도 연구 조사단체

현장조사 - 관찰, 인터뷰, 관공서 자료

사후조사 - Web, 국회도서관, 선교단체 조사파일, 인도 연구 조사단체

제 2장

지역 보고서

인 도

국명 : 인도 공화국

면적 : 3,287, 590 Km²

인구 : 9억3천64만2천명

수도 : 뉴델리 (인구 29만4천명)

종교 : 힌두교, 수니 이슬람교

언어 : 힌두어를 비롯한 14개 지방어

공용어 : 힌디, 영어

문맹률 : 48%

평균수명 : 60세

주요 경제활동 : 철강, 화학, 전자, 기계류, 운송장비, 섬유, 제지업

주요 수출품목 : 차, 커피, 해산물, 육류

일인당국민소득 : 290 달러

인도의 힌두문화는 토착민인 드라비다족과 B.C. 1500년경 중앙아시아로부터 도래한 아리안계 유목 문화가 결합되어 탄생하였다. 이슬람교는 8세기 초 아랍인들이 전파하였다. 1526년 몽고계 무갈인이 봉건제국을 건립한 후 융성하다가 18세기 농민반란으로 국정이 흔들리던 중 서구의 압력으로 문호를 개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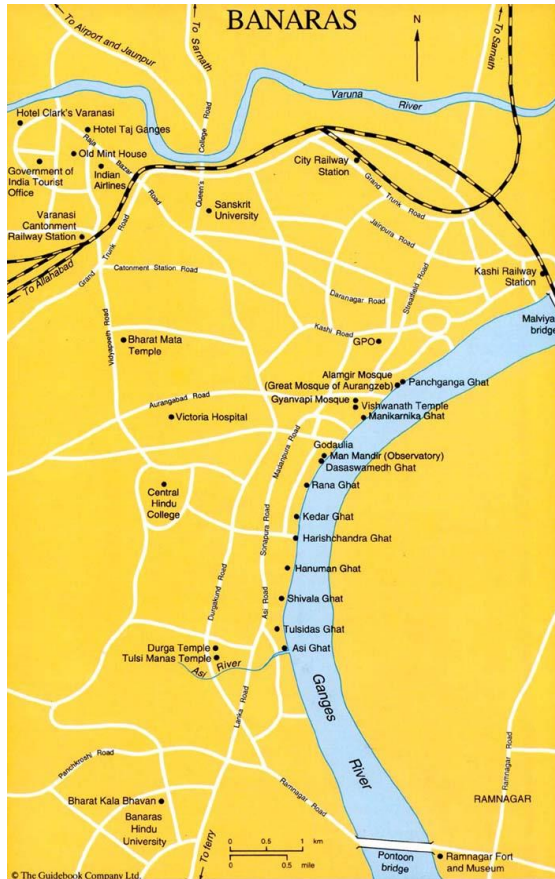
20세기 중반까지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는 마하트마 간디의 영도하에 1947년 독립하였지만 경제적 자립성을 갖추지 못하여 빈곤의 늪으로 빠져들게 된다. 그러나 식민통치의 유산으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의회정치의 확립, 철도망이 지방 곳곳까지 연결됨으로 인해 다민족 국가인 인도는 민주주의를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분리주의자들의 준동과 종교전쟁으로 인해 국가의 단일성에 금을 가게 만들었다. 1980년대부터 발생한 시크교도의 반란은 수천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1984년 인디라 간디 수상은 암살자의 총탄으로 세상을 뜨게 된다. 그로부터 7년 후 그의 아들인 라지브 간디 또한 폭탄 테러로 목숨을 잃었다.

인도가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뿌리깊은 관료주의, 높은 문맹률, 연간 2천7백만에 달하는 높은 출생률(현재 인구수 세계 2위) 등이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소비재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했으며 녹색혁명의 혜택을 입은 농민들은 쌀과 밀의 증산에 성공하여 인도는 잠재력이 큰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바라나시 (출처 : 강력한 진 - 곽야곱 선교사)



인구 약 93 만(1991).

베나레스(Benares)라고도 한다. 기원전부터 산스크리트로 알려져 온 고도(古都)이며, 후에 바라나스(Banaras)라고도 불렸다. 갠지스강 연안에 위치하며, 힌두교의 7개 성지(聖地) 가운데 으뜸으로 꼽힌다. 연평균 100 만에 달하는 순례자가 연중 끊임없이 모여들어 갠지스강에서 목욕재계를 한다. 그들 순례자를 위하여 갠지스강변에는 길이 약 4 km 에 걸쳐 가트라는 계단상의 목욕장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그 한쪽에는 죽은 사람을 화장하여 그 재를 갠지스강에 뿌리는 장소도 있다. 시내에는 1,500 을 넘는 크고 작은 힌두교 사원이 밀집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흔히 골든템플이라고 부르는 비셰시와르 사원이다. 예로부터 힌두교 문화 및 그 연구 중심지가 되어왔고, 산스크리트대학 ·바라나시 힌두대학 등이 있다.

바라나시는 비단 힌두교의 성지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시크교 ·자이나교 ·불교 등에서도 성지로 치고 있어서 한층 종교적 특색이 짙다. 시내에서는 금은사(金銀絲) ·견직물 ·놋쇠기구 ·보석가공 등 전통적인 수공업이 이루어진다.

개관

바라나시는 그 자신에 기초한 중요한 도시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도시중의 하나(2500 년 이상 된)이며 다른 지역들에 특별한 영향을 주는 도시이다.

이곳에서 받아들여진 것들은 그 밖으로 확장되어져 나라의 각 지역과 그 너머로 나아가게 된다. 인도의 힌두 성지들의 많은 장소가 이곳 바라나시에 있기 때문에 순례여행을 위하여 인도 전역으로 가는 대신에 단지 이 도시의 다른 장소들을 방문함으로 같은 공적을 얻을 수 있다. 이 곳은 힌두교 도들의 주요한 순례지 뿐만 아니라 불교도와 자이나교도 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장소이다. 힌두교의 대부분의 부흥들은 이곳에서 시작되어졌고 부처 또한 그의 첫 번째 설교를 바라나시의 인근 지역인 싸르나트에서 하였고 이곳에서부터 불교가

세상에 전파되어졌다. 바라나시는 힌디 저널리즘의 성장에 자극을 주었고 힌디 문학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바라나시 지역의 교육은 학문적 전통으로도 유명하다. 바라나시는 또한 춤과 드라마 그리고 음악의 출발지로 여겨진다. 그것은 계속되어질 수도 있다.

일찍부터 사람들은 이 지역 우상숭배의 정도에 경악하였고 이것은 변하지 않고 있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19 세기에 만약 바라나시를 그리스도교로 인도할 수 있다면 인도의 모든 자들도 곧 뒤를 따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으나 그것은 실현되지 않았다. 반면에 무결실과 낙담이 많은 사람들을 떠나게 만들었다.

바라나시에 사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영적 전쟁이요, 이곳의 어둠의 권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무기들을 가지고 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 목표의 기도는 필수적이다. 그런 연고로 이 책의 목적은 세계의 중보 자 들에게 그들의 기도를 위한 열망을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발 앞에 데려와 저야할 필요가 있는 강력한 진들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근원들

과거에 발생했던 일들은 미래에도 그 영향을 끼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도시의 기원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도시의 기원을 이해함으로써 그 도시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들 양면이 이해되어지기 때문이다. 과거에 형성되었던 선택들은 경건한 열매든지 불경건한 열매(우리는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둔다.)든지 문을 개방한다.

도시의 불경건한 열매의 증거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사탄이 그곳에 들어와서 그의 추종자(악한 영들)를 통하여 발판을 놓도록 문이 개방되어진 장소가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회개를 통하여 참된 자유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도시 또한 회개와 십자가를 통하여 불경건의 뿌리들이 제거될 때에 참되고 경건한 자유를 아는 것에 도달 할 수 있다.

일찍부터 바라나시는 풍족한 물 공급(갠지스 강이 또한 통과한다.)과 산림들로 알려져 있었고 이것들은 종교의 중심지로서의 이 지역의 명성을 도왔다. 땅은 비옥했으며 풍족하게 생산하였다. 초기의 거주자들은 야크샤스(Yakshas)와 나가(뱀 신- nagas), 마귀들과 이 땅 자체로부터 생겨난 우상들을 섬겼다. 어떤 우상들은 심지어 동물의 형태를 취하였다. 그들은 꽃과 향, 바나나, 황소들, 우유와 봉헌음식(후에 힌두 예배의 의 표준이 된 요소들)으로 숭배되어졌다. 심지어는 오늘날도 이러한 형태의 숭배는 힌두 여신들을 기쁘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부분 중요한 것이다. 이 원래의 우상들은 이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하여 숭배된 것이라기보다는 건강과 질병, 풍요, 운명 그리고 삶과 죽음의 영역들을 위하여 숭배되어졌다. 사람들은 징조를 믿었고 매우 미신적이었다. (이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확실한 증거이며 특히 점성술의 영역에 확실한 증거이다.) 태양 숭배 또한 매우 오래된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바라나시에는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숭배한다.

야크샤스(Yakshas)는 우상으로 묘사된 최초의 신상이었다. 야크샤(Yaksha) 숭배는 600 A. D.년에 최종적으로 시바 숭배 속으로 흡수되어졌다. 어떤 사람들은 기원전 1000 년 일찍이 지복의 숲(바라나시)이 종교의 구도자들과 금욕 수행자, 그리고 요기들에게 흥미를 끌었고 철학적인 사상들이 광범위한 영역에 뿌리를 내렸다고 말한다.

자이나교가 출현하기 이전에 비쉬누와 시바 숭배자들 사이에는 항상 충돌이 있었다고 말해진다. 자이나교의 창시자는 바라나시에 그의 본부를 두었다.

부처는 그 후 기원전 528 년경에 바라나시 변경에 있는 사르나트에서 그의 첫 번째 설교를 하였고 그곳에서부터 불교는 세상과 만나게 되었다. 불교는 거의 1000 년 동안 바라나시에서 강성하였다.

805 년에 아디 상까라차리야(Adi Shankaracharya)가 바라나시에 옴으로 힌두교는 보다 강성하여졌다. 그는 힌두교의 다른 형태들을 통합하였고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불교의 영향력에 대항하여 싸웠다. 그는 차이없는 태양 숭배, 가네샤(코끼리 머리에 사람의 몸을 가진 우상으로 재물의 신으로 불림- 역자 주)와 샵띠 여신(힘을 상징하는 힌두교의 여신- 역자 주), 시바(파괴의 신- 역자주), 비쉬누(힌두교에서 보존의 신으로 불림- 역자 주) 숭배의 개념을 만들었다.

12 세기에는 이슬람교가 이 도시에 들어와 많은 힌두교 도들을 강제적으로 개종하였고 많은 힌두교 사원들을 파괴하였으며 그리고 종종 힌두 사원이 파괴된 곳에 모스크들을 지었다. 무슬림 들은 1764 년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바라나시의 통치권을 얻을 때까지 약 500 년 간 이 지역을 통치하였다.

이 곳에서는 무슬림 들이 첫 번째 침입하였던 때부터 계속 충돌이 있었고 1809/10 년에는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대 폭동이 있었다. 심지어는 오늘날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충돌을 볼 수 있다.

1885 년에는 이곳에 인도 신지 협회(Theosophical society of India)가 설립되어졌고 이 곳에 큰 영향-특히 애니 베산트에 의해- 을 끼쳤다. 또한 1930 년에 마하 트마 간디는 시민 불복종운동을 시작하였다.

바라나시에서 이름난 사람들은 15 세기의 라마나 다와 까비르, 16 세기의 톨시 다스였다. 그들은 종교와 문학의 영역에 큰 영향을 주었다.

바라나시에 임했던 재앙들은 특별히 1623 년, 1642 년, 1667 년(8 년을 지속함) 그리고 1936 년에는 수 천명이 흑사병으로 그들의 목숨을 잃었다.

바라나시의 도시 전체에 아마도 영향을 끼쳤을 또 다른 역사는 바라나시가 이른 시기로부터 무역과 상업의 중요한 중심지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바라나시는 갠지스 강과 북인도 길의 두 거대한 교역로가 교차하는 곳에 있었다. 사람들은 "벗어진" 존재로서의 경험을 갖기 위해서 확실히 이 도시에 너무 오래 머물 필요는 없다.

이 도시는 여러 번 왕국의 보호를 위한 왕의 결혼 동맹에 따른 기부금의 형태로 제공된 적이 있으며 이 도시가 매우 특별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반면에 두 번씩이나 이 도시가

카살라(까시)의 왕에 의해 두 번씩이나 너무 쉽게 버려졌기 때문에 비애와 거절의 느낌이 있다. 거기에는 또한 뒤에 논의할 것으로 도시에 영향을 준 특별한 희생들을 가지고 있다.

바라나시의 신들

현재 바라나시의 주요한 신들은 시바 -양성을 가졌다고 말해지는- 가 대부분 남근 숭배의 상징인 링가(남성의 상징)를 통하여 숭배되어진다. 링가의 축은 삭띠(그 의미는 힘과 능력임)라 불리는 시바의 반쪽 여성형을 재현하는 "좌석(seat)"이라고 불리는 둥그런 기초 위에 세워진다. 때때로 링가를 향하여 수로를 헤엄치는 고대의 뱀(나가) 숭배와 그의 연결을 상징하는 뱀이 만들어진다. 링가는 강가 강물이나 우유를 그 위에 붓거나 그것을 꽃들이나 잎들 등으로 장식함에 의해 숭배되어 진다.

시바는 대부분 파괴자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창조적인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들은 시바는 단지 사원들에 거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기초에 거한다고 말한다. 그의 배우자는 빠르바띠(Parvati)인데 그녀는 또한 안나뿌르나(바라나시의 여왕), 고리, 칼리 등과 같은 많은 다른 여신들(테비라고 불려짐)을 대표한다. 여신들 또한 바라나시에 많은 추종자-특히 시골 지역의 사람들-를 가지고 있다.

가네시는 시바의 아내인 빠르바띠가 그녀의 피부를 문지름을 통해 창조된 시바의 아들인 코끼리 머리의 신이다. 그가 어렸을 때 화난 시바에 의해 목 베임을 당했고 이것은 빠르바띠를 슬프게 하였다. 그래서 시바는 가네시의 머리에 코끼리 머리를 얹어두었다. 코끼리가 바로 그 잘못된 순간에 지나갔음으로 그의 머리가 가네시의 없어진 머리를 대신하는데 사용되어 졌다. 가네시는 지혜와 지식의 신이며 또한 "장애의 신"이다.

시바와 비쉬누 그리고 브라마(힌두교에서 창조자로 믿음)는 힌두교의 삼위일체를 형성하는 것을 돕는다. 비쉬누는 보존 자로 알려지는데 그의 환생의 존재인 람과 크리쉬나 같이 그 자신이 환생을 계속하는 것처럼 생각된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부처도 비쉬누의 환생이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환생을 통하여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환생중의 하나에 그들 자신을 드리는 강력한 추종자들을 유지한다.

람의 현신된 시종이요 원숭이 신인 하누만은 바라나시에서 대단히 유명하다. 그는 싸움에서 공헌한 것과 모락을 짠 것으로 유명하다.

이들 신들과는 별도로 바라나시의 특별함 때문에 모든 신들이 바라나시에 거주한다고 말해진다.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힌두교 인의 관념 속의 3 억 3 천만의 신들로 인하여 이 지역이 대단히 혼잡하여 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바라나시의 신화

어떤 사람은 바라나시는 창조가 시작되었을 때 존재했다고 말한다. 시바와 그의 아내 빠르바띠는 창조 전에 이곳에 있었고 바라나시는 시바의 삼지창 꼭대기에 앉아 있었다. (바라나시의 세 개의 언덕은 삼지창에 의해 생겨진다.) 바라나시는 지상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먼 해안(far shore)"과 땅 사이의 교차지점에 있다.

다음에서 말하는 내용은 이 도시에 다른 영향으로 어떤 빛을 비췄던 까시 칸다로부터의 이야기이다

언젠가 까시(바라나시)에 큰 기근이 있어서 시바와 모든 다른 신들은 그 도시를 떠났고 시바는 만다라(히말라야에 있는)산으로 가는 중이었다. 디보다사라는 이름의 한 왕이 시바가 떠났을 때에 바라나시를 통치하였다. 그는 정직하고 공평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도시는 그의 통치력 아래에서 번성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이 도시는 탁월함이 하늘을 능가하였다고 말해진다. 모든 자들이 서로 조화롭게 살았다. 이 기간 동안에 시바는 사랑하는 자가 그의 사랑하는 자로부터 나누인 것과 같이 바라나시로 되돌아오기를 갈망하는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디보다사에 의해 가뭄이 들었을 때 떠나도록 강요된 신들은 도시로 되돌아오는 것이 금지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되돌아 올 수 없었다. 시바는 디보다사 왕의 몰락을 유발할 계획을 세웠다. 시바는 64 명의 요기니스 (여신)를 1 년 동안 도시로 보내 문제를 만들어 왕을 속이도록 하였으나 그들은 실패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많이 사랑하던 바라나시에 머물러 살기로 결정하였다.

시바는 그 다음 태양 수리 야를 보냈으나 그 역시 실패하였다. 다음에 가나스(Ganas)와 가네쉬에 의해 동행된 브라만이 보내졌다. 그들 모두 시바를 위하여 그 도시를 되돌리는데 실패하고 까시(바라나시)에 머무르는 것으로 끝을 내었다.

마침내 비쉬누가 그 도시를 시바에게 되돌리도록 불려졌다. 비쉬누는 바루나 강과 갠지스 강의 만나는 지점에서 도시로 들어갔다. 비쉬누는 그 자신을 불교의 승려로 변장하였다. 그의 유명한 새는 학생의 형태를 취하였고 그의 배우자는 불교의 여승으로 변장하였다. 그들은 불교의 메시지- 이 전 우주는 창조자의 사역이 아니며 그곳에는 신들이 없고 모든 구체화된 생물들은 같은 영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평등하다. 그럼으로 폭력은 금지되고 높고 낮은 카스트의 편견은 금지된다. 를 전파하며 도시 주변으로 갔다. 이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은 그릇된 길로 가기 시작했다. 여자들은 그들 남편에게 봉사하는 것을 그만두었고 남자들은 다른 여자들을 뒤쫓았다. 불교의 여승은 사람들을 마술과 주문 등으로 흥미를 끌었다. 이 혼돈 속에서 비쉬누는 자신을 브라만 승려로 변장하여 이제는 그의 왕국으로 말미암아 중압감을 느끼고 있는 디보다사에게 갔다. 비쉬누는 디보다사는 시바를 그 도시로부터 추방한 죄를 회개하고 시바의 링가를 숭배함을 통해 이 모든 짐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으며 시바의 가장 높은 하늘로 취해질 것이라라고 말했다. 이것을 디보다사가 행하고 떠났을 때 시바는 다른 신들과 함께 큰 기쁨의 시간을 가지고 도시의 북쪽 변경을 통하여 되돌아왔다. 비쉬누는 뻘짜강가(도시의 중요한 순례지)에 머물렀다.

강가 강

의심할 수 없이 바라나시에 가장 충격을 주는 모습은 도시의 동쪽 편에 위치해 있는 강가(갠지스) 강이다. 여기에서 도시를 따라 흐르는 강이 있는 장소에 많은 부분 주요한 숭배들이 매일 행해지는데 축제 때에는 가장 강력하게 행해진다. 강가 강은 하늘로부터 지상에 떨어진 강으로 말해지는데 여신이요 어머니로 숭상되어진다. 이 강은 인도인들에

의해 많은 사랑을 받으며 인도의 문화와 문명의 상징이다. 힌두교도 들에 의하면 그것의 물들은 순수하며 깨끗하며 거룩하다. 그 강물(특히 만약 바라나시의 강물)에 목욕한다면 이 목욕을 통하여 많은 생애의 세대(힌두교의 윤회설에 따르면 7 세대라고 함-역자 주)의 죄들을 제할 것이며 힌두교 도들은 컵 모양의 손으로 물을 푸어 조상들과 신들에게 공양으로 강물 속으로 그것을 되돌린다. 그들은 또한 강에게 꽃들과 기름 심지가 있는 작은 도기를 바침으로 강을 신으로 대우한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동 항아리에 갠지스 강물을 담아 집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죽은 자의 재는 물론 강 물 속에 뿌려진다. 여신으로서 갠지스 강은 브라마와 비쉬누 그리고 시바의 배우자라고 주장되는데 갠지스(인도에서는 강가라고 불림-역자 주)는 이들 셋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강가 강의 근원은 히말라야(수많은 귀신 적인 활동이 있는 지역) 산의 높은 곳에 있는 강고트리이다. 이 강은 하르드와르(신의 문이라는 뜻임-역자 주)의 평면에 도달한 후 점차로 그녀의 길을 뱅갈 만으로 굽이치며 나아간다. 역사 속의 많은 다른 문화들 속에서처럼 주요한 강들은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사탄 적인 힘을 위한 근원이 될 수 있다. 창조자를 경배하는 대신에 그들은 피조물을 숭배한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 시로다 아멘.) 그리고 이와 같이 그들은 요새가 그 자신에게 세워지도록 문을 개방한다. 확실히 강가 강은 바라나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도의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참된 경배는 이 힘을 분쇄할 수 있다.

바카리아 쿤드

바카리아 쿤드는 바라나시 기차역 가까이(남쪽 지역) 위치해 있는데 바로 라즈 갓 중심도로에서 떨어져 있다. 그곳은 거대한 역사의 장소이다. 그곳의 이전 이름은 우타르카 쿤드이며 거대한 태양유적의 하나로 알려졌다. 마투라의 성시가 또한 이곳에서 재현된다고 여겨진다. 불교와 바이시나바 종교가 이곳에서 융성하고 있다. 거대한 크리 쉬나 동상이 바카리아 쿤드의 서쪽 가장자리에서 발견되어 졌다.(이것은 바라뜨 깔라 바완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

거대한 불교 사원과 비쉬누 사원도 이곳에 설립되었었다고 생각된다. 바라나시에 탁월한 역사가인 엠 에이 쉐링 목사는 1800 년대에는 이 지역이 주요한 불교 유적지였다고 믿는다. 그는 이곳에서 짜르나트로 발견되어지는 라인과 이곳으로부터 바른 편 쪽인 라즈갓으로 이어지는 라인, 이곳으로부터 아우랑제브 모스크(빠짜강가 가트)로 이어지는 세 번째 라인에 대하여 말한다. 그것은 마치 "목초지 라인들"(ley lines) 에 대하여 보다 잘 알고있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 그곳에 있었던 증보기도 자들은 그곳이 영적인 운동을 위한 통로였다고 느꼈다.

오늘날 이 지역은 완전히 무슬림 지역이며 과거의 흔적들을 거의 볼 수 없다. 이 지역에서는 많은 사리 생산이 이루어진다. 제트(Jeth)월의 첫째 주일 무슬림 들은 이곳에서 "가지미안"이라 불리는 축제를 개최한다. 그것은 힌두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다가 19 세에

살해되어 순교자라 불리는 쌀라르 마수우드의 죽음을 애도하는 축제이다. 이것은 바라나시에서 행해지는 가장 부도덕한 축제중의 하나라고 엠 에이 쉐링 목사는 말한다. 그곳에 가수들이 와서 노래를 부른다. 이것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난폭한 방법으로 그들의 머리를 돌리며("어떤 세력"아래에 있는 것같이) 메시지를 말하는 여성 청중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축제는 오늘날도 여전히 실행되고 있다.

영적 운동을 위한 채널로서의 장소뿐만이 아니라 무관심과 사기의 영들이 이곳에서 느껴졌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 내쫓겨졌고 남용되어지고 있다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부도덕의 장소이기 때문일 것이다.

뜨리로차나

뜨리로차나는 마라티들에 의해 세워진 중요한 시바사원의 하나로서 가야가트의 바로 북쪽에 세워져있다. 까시의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링가 중의 하나가 이곳에 있다. 그것은 이곳에 스스로 나타났다고 말해진다. 12 세기의 거대한 사원중의 하나가 이곳에 있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도시의 북쪽 지역에서 가장 잘 보존된 사원들 중의 하나라고 이것을 말해야 할 것이다.

도시주변에서 당신은 이 지역 사람들이 잘 살고 부유하며 똑똑하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트리로차나는 3 개의 눈을 가진 시바를 의미하며 이와 같은 형태로 숭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곳은 항상 혼잡한데 특히 시브나트리에 때에는 더 혼잡하다.

특별한 도시의 여신 바라나시 데비도 이곳의 신당에서 숭배되어 진다.

뜨리로이차나는 아비목파와 옴카라 깐다의 순례 지의 끝 지점이다.

비록 이 지점이 중보기도 자들에게 비쉬와나트와 같은 장소로서의 중압감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근접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느껴졌다. 사기와 기만이 이 장소에 더 머물수록 더 강력하게 느껴졌다. 그 곳은 또한 이곳 문화의 실제 자랑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가 아는 한 역사의 어느 시점에도 이곳 북쪽 지역에 교회가 설립되어지지 않았다.

마디아 메쉬와라 (중앙의 주)

"거룩한 원"의 중심이라고 알려지며 12 세기에 대단히 중요하였다; 고대 까시의 거대한 링가들 중의 하나가 이곳에 존재한다고 하는; 지금 이 사원은 주변에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는 않은 지극히 작은 사원이지만 사람들을 끄는 힘이 있다.

라트 네쉬와라(보석들의 주)

이것은 도로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작은 사원이지만 대단히 활동적이다. 이곳의 링가는 빠르바띠(시바의 아내)의 아버지에 의해 세워졌으며 보석들로 만들어 졌다고 말해졌다.

크리띠와셰시와라(코끼리 가죽을 입은 주, 코끼리 괴물에게 승리한 시바라고 불림)

12 세기 이전에 이것은 가장 거대하고, 오래되고, 유명한 까시 링가 들 중의 하나였다. 그것은 때때로 지리학적인 중심처럼 인용되었다. 거룩한 도시 우자인도 이곳에서 상징된다. 본래의 사원은 무슬림에 의해 파괴되었고 무슬림은 그 장소에 모스크(회교사원- 지금은 아주 황폐하게 보인다.)를 세웠다. 링가가 그곳에 더 이상 존재하지는 않지만 일 년에 한 번 시브나트리에 들어오는 것이 허용되어져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탱크 속으로 봉헌 물을 드린다.

지금은 크리띠바세쉬와라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거대한 시바 링가의 집인 몇몇의 힌두 사원들이 모스크 가장자리에 세워졌다.

만다 키니 지역의 다른 한 사원지역에는 마하칼레시와라(거대한 죽음)와 같은 수많은 중요한 신당들이 있으며 우자인 또한 이곳에서 재현된다. 또 다른 하나는 브리다칼레시와라(죽음의 옛 주인)이다. 빛의 거대한 링가들 중의 하나가 이곳에서 발견된다. 그 뒤에 우리는 프리띠운자야(죽음의 정복자)를 가진다; 그것은 까시 북쪽지역의 영적인 닻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모든 시바의 형태들은 노인들과 질병을 가진 자들에게서 경배되어지는 것들이다.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것들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당신은 이 지역에서 또한 발견되는 팔라꾸빠(시간의 우물)로 갈 수 있다. 이곳은 까시의 가장 거룩한 우물 중의 하나이며 힌두 월력 쉬라바나 달의 일요일에 이 우물의 물을 마실 때 건강과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 지역은 시브나트리 기간에는 대단히 혼잡할 것이다.

바라 가네시 사원

바라 가네시 사원은 메이다진 쪽으로 진행한 후 까비르 차우라 정부병원의 왼손 편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원 자체는 1825 년경에 설립되어졌지만 그 안에 있는 우상들은 그보다 더 오래 되었다. 이곳은 바라나시에서 가장 큰 가네시 사원이며 또한 대단히 알려진 곳이다. 소위 1995 년 10 월 세계를 강타했던 "우유의 기적"이라고 불렸던 기간에 이곳은 숭배자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사원에 근접한 많은 곳에 비쉬누, 깔리, 하누만, 시바와 같은 많은 우상들이 있으며 그것은 아마도 사람들이 이 지역을 방문할 때 중압감을 더하게 할 것이다.

코끼리의 머리를 가진 힌두 신인 가네 시는 군중들의 눈에 띄는 것처럼 보인다. 가네 시는 탈것으로 큰 쥐를 타고 다닌다. 그의 코끼리 부분은 그의 진행로의 모든 것을 분쇄하며 큰 쥐는 구멍과 부서진 틈들 속으로 살금살금 들어가며 같은 과업들을 성취한다.

가네 시는 장애의 제거 자로 알려지며 또한 장애를 만드는 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또한 큰 무리의 주인이요 지혜와 지식의 신으로 불려진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들과 특히 산스크리트를 공부하는 젊은 학자들이 그를 숭배한다.

힌두 2 주(14 일)중의 매번 4 번째 날은 가네 시 숭배를 위하여 중요한 날이며 달이 기우는 2 주(보름 후의 2 주)는 더 중요하다.

뽀짜강가 가트

이 이름 뽀짜 강가는 이 지점에서 5 개의 강들이 강가 강으로 흘러들어 간다고 여겨져서 이름지어졌다. 이곳은 비쉬누의 집으로 알려지며 비쉬누가 좋아하는 장소라고 여겨진다. 비쉬누는 도시를 시바에게 준 뒤에 이곳에서 머무르며 영원히 살도록 서약되어졌다. 이 장소에서 비쉬누는 빈두 마다바로 알려진다. 모든 힌두 신들은 힌두 월력 까르티카(10 월/11 월) 달에 이곳에서 목욕한다고 추측된다. 그 때에는 이 장소가 특별히 거룩하고 깨끗하게 된다고 말해진다. 칸치의 도시가 이곳에서 상징화된다. 무슬림 들이 와서 침략하기 전에 십자가 형상의 거대한 비쉬누 사원이 이 곳에 있었으나 무슬림 들이 그것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탑을 가진 모스크를 그곳에 세웠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경탄할 모스크 곁에 세워진 작은 비쉬누 사원을 발견할 수 있다.

그 곳은 또한 화장터를 위한 오래된 장소였다고 생각되어진다. 교사 라마 만다와 까비르, 툴시 다스와 같은 거대한 스승들이 이곳에 살았다. 가트에는 두 개의 승원이 있는데 라마난다의 전통을 따르는 자들이다. (라마 난다는 반문화적인 탄트릭 수행자들이었던 아그호라이트들- 우리가 도덕적이라고 여기는 것에 반대하여 가라는 관점을 가진 자들- 과 유사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나열하기에 흥미 있는 일은 중보기도 자들의 그룹이 이곳에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이전에 라마 난다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한 자매가 아그호리의 비전을 가졌다. 정욕과 두려움, 탐욕, 협박, 혼돈과 사기의 죄악이 이곳에서 견고히 뿌리를 내리고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이 지역은 비쉬누의 넓적다리라고 알려져 있으며 도시의 지도를 자세히 보면 흥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만약 뽀짜 강가로부터 도시의 다른 쪽에 있는 마두아로 한 라인이 그려진다면 사람들은 비쉬누와 관련된 수많은 사원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라인 쪽에는 또한 옛 사창가인 달 만디 지역과 새 사창가 지역인 마두아가 있다. 그것은 마치 정욕의 영이 이 라인들을 달리는 것과 같다. 최근에 한 팀의 신자들이 이 라인을 따라 땅 밟기를 하였으나 그곳에 더 많은 강력한 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전략과 영적 전쟁과 기도가 요구된다.

썬카타 데비 사원

썬카타 데비 사원은 뽀짜강가 가트와 마니까르니카 쿤드 사이인 썬카타 가트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 것은 도시에서 가장 강력한 사원 들 중의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주변에 수많은 잘 관리되고 있는 중요한 사원들이 있다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 이 지역은 성취의 장소라고 알려져 있다. 썬카타데비는 위험의 여신이다. 그녀는 위험들을 정복한다. 그녀의 원래의 이름은 비카타 마트리카(홍폭한 어머니)이며 그녀는 원래는 어떤 남신들과도 연합되지 않았지만(대부분의 여신들처럼) 지금은 때때로 시바와 관련되어진다. 그녀는 또한 두르가, 빠르바티 그리고 바바니로 알려져 있다. 썬카타 데비는 병든 아이들을 붙잡는 자요 생명을 지키는 자로 알려진다. 그녀에 관한 한 이야기에는 그녀가 한 왕자를 길렀는데 그 왕자는 시바가 사람으로 그에게 나타나기까지 수행을 하였다. 그 왕자는 비라(영웅)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는데 그 근처에는 그에게 봉헌된 사원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시바의 아들 스칸다에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의 초상화가 비레시와라(비라의 사원)의 장소에서 탁월한 위치를 차지한다. 금요일 아침은 썬카타데비 사원에 가장 많은 숭배자가 오는 때이다. 이 때에는 대부분 여성들이 모여들며 그들의 봉헌 물을 드리고 헌신적인 노래를 함께 부르며 썬카타데비를 숭배함에 의해 어려움이 해결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는다. 결혼한 여성들에게는 남편들의 장수를 지켜주도록,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에게는 좋은 남편을 주도록, 어린이들과 성인들에게는 시험에 합격하고 질병과 사고로부터 지켜주도록 숭배되어진다.

마니까르니카 꾀드

마니까르니카 꾀드는 강가 강을 따라 위치하고 있는데 메인 가트의 북쪽 화장하는 가트 바로 뒤에 있다. 한 유명한 전통에 따르면 "까시"는 마니까르니카 꾀드를 분기점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바루나 강에서 마니까르니카 까지는 비쉬누의 영토로 여겨지며 마니까르니카로부터 앳시 강까지는 시바의 영토로 여겨진다. 마니까르니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바라나시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여겨지는데 한정적으로 순례자들과 축제 때에는 대단히 중요한 장소이다. 그곳의 대단한 중요성 때문에 시바, 빠르빠띠, 비쉬누와 락쉬미와 같은 많은 신들과 여신들이 정오에 이곳에 목욕하러 온다. 힌두들의 생각으로는 이 지역은 강가 강 이전에 이곳에 있었고 그 물의 근원은 히말라야에 있는 강가의 근원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흐르는 지하 강물로부터 온다. 비쉬누는 그의 원반으로 우물을 뿔고 그의 땀으로 그 우물을 채웠다고 또한 말해진다. 그곳에는 마니까르니카 데비라는 여신이 있는데 이 꾀드와 밀접하게 연관되며 그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년에 두 번(4 월/5 월, 그리고 9 월/10 월) 그 꾀드(pool)는 꽃으로 장식되며 그녀가 그 위에 거주한다. 쉬라다 의식(조상들의 세계에 메시지를 위하여 죽은 자를 양육하는 것)이 이곳과 또한 빠샤차모차나에서 행해진다.

신화들 중의 하나에 의하면 마니까르니카가 세계의 첫 번째 물웅덩이(Pool)였다고 말한다. 이곳에서 시바와 비쉬누가 첫 번째로 만났다. 시바는 비쉬누를 창조하였고 그에게 세상을 창조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비쉬누는 7 천년동안 따빠쓰(Tapas- 창조적인 것이라고 믿어지는 고행에 의해 열을 발전하는 것)를 하였다. 어느날 시바와 빠르빠띠는 둘다 꾀드에서 목욕을 하였는데 목욕하는 도중에 빠르빠띠의 귀걸이(까르니카)가 꾀드 속으로 떨어졌는데 그 이후로 이름이 유래되었다. 시바는 비쉬누가 창조한 것들에 만족하였고 시바는 비쉬누에게 하나의 선물 뒤에 다른 것을 선택하라고 요청하였다. 비쉬누가 선택한 것들은 바라나시를 유명하게 만들었다:

싸다르 바자르 지역(바하두르 사히드 바바 모스크)

싸다르 바자르 지역은 도시의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칸톤먼트 지역에 근접하여 있다. 이 지역은 약물중독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라나시에 사는 한 사회학 교수에 따르면 심지어는 주부들도 갈색 설탕에 중독되어 있다고 한다. 바라나시 성지의 부분들의 주요한

몇 사원은 비쉬마찬디카(깔리, 찬디카, 아짜니카등과 같은 데비(여신)들을 위한 사원으로 보여짐)와 빠샤쁘니 이다. 빠샤쁘니의 주요한 신들은 가네샤, 바이라바, 시바와 하누만이다. 이 지역에서 공포와 중압감, 희망 없음이 강하게 느껴졌다.

싸다르 바자르에서 "흥미 있는" 또 하나의 장소는 바하두르 사히드 바바 사원이라 불리는 모스크이다. 매주 목요일 치유와 기적에 대한 회의가 개최되는데 거의 95%가 힌두 배경의 사람들이며 심지어는 기독교인도 그곳에 온다. 그곳에서는 "기적과 기사"가 확실한 증거이지만 아버지와의 하나됨과 관계를 가져오는 것과 같은 형태는 아니다. 당신이 이 지역의 사람들과 대화할 때 유사한 주제가 떠오른다. "모든 것이 하나이며 모든 길은 같은 길로 이끈다." 도시의 다른 지역에서는 힌두와 무슬림의 마찰 때문에 야간 통행금지가 여러 번 공포되어야만 했으나 문제들이 일어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인다.

까비르 마트

까비르마트는 시브다스뿌르, 라하따라, 만두아디 지역에서 건설 중에 있는 거대한 새 사원이다. 많은 숙박시설을 갖춘 방들을 가진 그것이 완성되어졌을 때에는 아주 장엄할 것이다. 이 사원은 그의 시대에 위대한 시인이었던 까비르(15 세기)에게 봉헌되어진다. 이곳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비쉬누의 추종자들인데 그들은 까비르가 비쉬누의 완전한 현신 이라고 말한다.

까비르는 낮은 카스트 가족 출신이었는데 그는 이슬람으로 개종한 자였다. 어떤 사람은 까비르가 무슬림 빠르(pir)의 제자였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그가 힌두이고 바이쉬나바인 라마나다의 제자였다고 말한다. 그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그는 힌두와 무슬림 양쪽의 거룩한 경전들을 다 비웃었다. 그는 영원한 진리, 신적인 사랑, 연합, 보편적인 형제애, 비폭력, 동정심, 용서와 깨달음의 길 등에 대하여 가르치곤 했다. 그는 심지어 사람들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일으켰다고 말해진다. "까비르 차우라"의 장소는 그 뒤에 이름지어졌다. 까비르가 죽었을 때 힌두와 무슬림 양쪽 다 그것이 그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시신을 가지고 다투었다. 그의 삶의 이야기에 대하여 말해주는 "싸드구루 까비르"의 삶의 개관(glimpse)" 이라 불리우는 책이 있다. 이 책의 이야기들은 성서와 많은 평행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의 끝에는 당신의 삶 속으로 오기를 구하는 까비르의 기도가 있다. 그것은 정말로 속임수가 이 지역의 여론임을 지적한다.

바라나시의 프리메이슨단

프리메이슨 단체는 거짓된 종교이다. (비록 어떤 자는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부인하지만) 그들은 그들 자신의 경전과 사원들, 제단들, 종교적인 상징들, 표징들, 제사장들, 믿음의 고백과 그들 자신의 의식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우주의 위대한 설계자"로 알려져 있다. 비록 많은 기독교의 상징과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그것의 기원은 이집트의 신인 오시리스, 아이시스 그리고 호루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프리메이슨 단체에서 진행되는 많은 것들이 명확하게 모든 것들이 빛 속에서 행해져야 할 필요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반대적으로 비밀(어둠)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들이 설립되어진 장소와 가족들을 따라 어둠 속에서 행하는 자들은 저주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바라나시에서 프리메이슨단은 두 곳에 설립되어 있다. 바루나 단은 바루나 강에 근접한 칸톤먼트 지역에 있다. 그것은 적어도 1890 년 이전에 설립되었다. 오늘날 그 곳에는 적어도 의사들, 기술자들 등으로 구성되고 규칙적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20 명의 프리메이슨 단원이 있다. 제단의 전면에서 당신은 성경과 코란, 바가바드 기타와 시크의 경전 등이 그 장소의 자랑을 취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단체는 렉사로드에 그들의 사원이 있는 신지협회(Theosophical Society)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18 명의 프리메이슨 단원이 규칙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코 메이슨(Co-mason) 또한 이곳에서 모인다. (이들은 프랑스에서 본부가 설립되어진 프리메이슨의 여성단체이다.) 비록 바라나시에서 거대한 프리메이슨의 모임은 없지만 우리는 그들이 도시에 강력한 방법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느꼈다. 중압감, 두려움, 협박, 속임수 등이 이 장소들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이나 미국 등지로부터 와서 19 세기에서 이른 20 세기에 이곳에 살았던 메이슨으로서의 기독교인의 가능성은 아주 높다.

신지 협회(Theosophical Society)

신지 협회는 렉사로드의 크고 아름다운 주변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바로 라타 야트라 사거리의 앞에 있다. 그 곳은 바라나시의 마하라 자(왕)에 의해 기증되었으며 그는 이 협회에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신지협회는 1875 년 11 월 11 일 헬레나 페트로브나 블라바츠키와 코로넬 헨리 스틸 올 코트에 의해 설립되어졌다.

그것은 3 개의 주요한 교의를 가지고 있다.

1. 인류의 우주적인 형제애의 창조
2. 비교 종교와 철학, 과학의 연구의 격려
3. 초월적인 현상들의 조사(마술(occult)에 대한 연구)

1895 년부터 1907 년까지 바라나시는 2 개의 주요한 이유로 인해 신지 협회의 본부가 되었었다:

1. 북인도의 사람들이 이 협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 애니 베산트가 바라나시에 힌두이즘의 중심이며 인도의 전역에 펼쳐질 힌두 대학교들의 모체가 되는 대학교를 설립하기를 원했다.

애니 베산트는 아일랜드 출신으로 런던에서 출생하여 그녀의 시대에 최고의 연설가 중의 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녀는 1889 년에 이 협회에 들어가 그 협회의 주요한 리더가 되었다. 그녀가 젊었을 때 한 제사장과 결혼하였으나 그녀의 딸의 병 뒤에 그녀는 신에

대하여 쓰게(bitter) 되었으며 그 뒤에 이혼하였다. 애니 베산트는 힌두이즘을 부활시키는 사람으로 칭송되었으며 그전까지는 바라나시에 기독교가 좋은 행로를 취하는 것으로 보였었다. 그러나 후에 그녀는 세계의 교사(선생)의 음(coming)을 알리기 시작했을 때 많은 폭풍을 바라나시에 초래하였는데 그것은 힌두들의 종교적인 전통에 반하는 것이었고 그 이유로 그녀는 이 문제로 얼마간의 대중성을 잃었다. 그 후 그녀는 베나레스 힌두 대학교 설립을 돕는 것을 계속하였다.

이 기초 위에 교육의 여신인 사라스와띠에게 봉헌된 학교와 사원들이 있다. 프리메이슨과 코메이슨들이 또한 이곳에 숙박시설을 가지고 있다.

삐샤짜모짜나 켄드

삐샤짜모짜나 켄드는 라후라비르 도로에서 말다히야 지역 안의 정거장 도로 쪽 호텔 인터네이셔널 바로 뒤에 있다. 삐샤짜모짜나의 의미는 "악귀가 구원받은 장소"이다. 삐샤짜모짜나는 원래는 까시로 살금살금 들어오는 삐샤짜모짜였으나 바이라 바에게 붙잡혀 즉석에 목이 잘려졌다. 그 뒤에 바이라 바는 그가 도시의 고통스러운 조건에 있는 다른 삐샤짜를 해방시키는 것을 위하여 한정적으로 머물도록 허용하였다. 당신은 켄드의 곁에 있는 사원들의 하나에서 삐샤짜의 머리의 우상을 발견할 것이다. 삐샤짜모짜나는 특히 불시의 죽음이나 사고로 죽음을 만난 자들을 위한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그 뒤에 삐샤짜가 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친척들이 특별한 제식을 위하여 이곳에 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의식에 의해 그들(삐샤짜)은 쉼 없는 상태로부터 조상들에게로 양도되어진다. 아쉬비나(9 월/10 월)의 첫 번째 2 주는 죽은 자를 기념하는 것으로 중요하다.

만약 당신이 나쁜 영들과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이곳이 올 장소인데 힌두 제사장들이 그것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해방을 찾아낼 것이다.

이곳의 많은 사원들이 수리야, 가네시, 크리 쉬나, 하누만 그리고 시바에게 봉헌되어졌다. 이곳에 있던 사람들은 강력한 비웃음의 영으로 매우 쉽지 않음과 중압감을 느꼈다. 당신도 또한 정욕이 이 곳의 강력한 진임을 인식할 것이다.

경배가 이 지역을 위한 중심이다.

수리야 켄드(수라즈 켄드)

수리야 켄드는 도시의 주요한 부분인 고도울리야 사거리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다. 그곳은 거대한 활동의 장소였으나 지금은 옛날의 찬란함을 얼마간 잃었다.

그 기원의 이야기 속에서 잠바와띠(크리 쉬나의 아내)의 아들인 썸바는 그의 아버지에게 매우 강한 공격을 시도하도록 기대되었으나 크리 쉬나는 그에게 저주를 선언하였다. 그래서 썸바는 나병환자가 되었다. 그 때 그의 어머니 잠바와 띠는 아들을 위하여 크리 쉬나에게 간청하였다. 이 후에 크리 쉬나는 만일 썸바가 베나라스에 가서 고행을 실천하고 탕크를

짓고 그 물에 목욕하고 태양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한다면 그가 그의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것을 하였고 치유되었다.

수리야 쿤드는 바라나시에 있는 거대한 태양 유적의 하나이다. 한 때는 이곳에 썸바디띠야의 형상을 가진 집이 있는 거대하고 감명적인 사원이 있었으나 무슬림이 도시를 장악했을 때 완전히 파괴하였으며 그것은 이 사원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무슬림 들은 거대한 영향력이 느껴지는 사원들을 파괴하곤 했다.)

지금은 사람들은 썸바디야와 아쉬땅 바이라바 신들에게 바쳐진 2 개의 작은 사원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기도를 드리려고 이 사원들에 오는 많은 사람들의 연속된 무리들을 볼 수 있다.

락쉬미 쿤드

락쉬미 쿤드는 정확히 렉사 로드 저쪽의 고도울리야에 있는 성 도마 교회로부터 약 5 분의 도보거리에 있다. 이 쿤드는 헌신된 비쉬누의 아내 락쉬미, 좋은 행운의 여신, 의 뒤에 이름지어졌다. 그녀를 높이기 위한 쏘라히야 멜라라 불리는 16 일 축제가 이곳에서 개최된다.(8 월/9 월) 여성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락쉬미에게 서원 한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16 일 동안 목욕할 것이다. (매일) 축제동안 16 가지의 곡식과 16 가지의 꽃들을 가지고 그녀를 높일 것이다. 힌두의 주요한 축제인, 수많은 도박과 불꽃놀이와 화약류 구입에 수많은 재정들이 소비되는 디왈리때도 락쉬미가 숭배되어진다.

마유리, 64 명의 요기니(요가 하는 여자들-마술사)들이, 추측 건데, 시바가 또한 이곳에 살 수 있도록 그 도시를 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시바에 의해 보내졌다. 지리적으로 이 지역은 매우 불결하지만 그것은 또한 이 지역의 영적인 영역의 반영일지도 모른다.

이 장소는 도시의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는데 그곳에서는 여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되리라고 의도하셨던 것이 되는 것이 허용되어지지 않았던 존재들이었다. 중보기도 자들은 사기, 무관심, 희망 없음, 더러움, 벗어남, 악함과 물질주의를 이 지역으로부터 느꼈다. 이 지역에 뿌리내린 것들은 힌두교가 오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다. 이 장소의 있는 것들이 또한 고도울리야에 있는 성 도마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느껴졌다. 그 적은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강탈하고 훔치는 도둑이다.

안나뿌르나 사원

안나뿌르나 사원은 비쉬와나트 사원(황금 사원) 곁에 세워졌으며 이 전 지역에 한 개의 의미들 같은 영적인 환경을 만든다. 그것은 안나뿌르나 여신에게 봉헌되어졌다.

그녀는 왕 비쉬와시와라(시바)와 함께 통치하는 까시의 여왕이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그녀가 바라나시의 실질적인 통치자라고 한다. 안나뿌르나는 "풍부한 음식의 그녀"이며 그녀는 추종자들에게 음식을 공급한다. 그녀는 완전히 자비롭고 빛나는 여신이요, 다른 여신들과는 달리 그녀의 손에는 무기가 없다. 대신에 그녀는 그녀의 손에 요리용 용기와 수저를 들고 있다. 음식의 공급자처럼 그녀는 생명의 부여 자이다. 시바와 안나뿌르나가 한

계약을 맺었다고 말해진다. 그녀는 음식과 삶의 충만함을 공급할 것이며 그는 임종시에 구원을 줄 것이다.

많은 힌두들은 안나뿌르나가 바라나시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무도 굶주리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차이가 있다.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도시의 가난한 자와 필요한 자들에 대하여 무분별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사탄은 도적이고 훔칠 것을 찾으며 죽이고 파괴한다; 안나푸르나를 통하여 사탄은 사람들을 속여서 돌봄의 태도를 없애고 그들의 믿음을 참된 공급자에게 두기보다는 속이는 영들에게 두게 한다.

중압감, 속임수, 혼돈, 불일치와 미련함이 이 사원에서 인식되어 졌다.

비쉬와나트 사원과 간바빠 모스크

비쉬와나트(이것의 의미는 모든 것의 주) 사원은 또한 황금 사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바라나시의 중요한 사원이며 힌두들의 중요한 순례장소의 하나이다. 이 사원은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의 하나로 여겨지며 최고로 숭상되는 링가를 가지고 있다. 이 사원은 시바에게 봉헌되어졌으며 오직 힌두만 들어가도록 허용된다. 이 사원은 도시의 주요한 부분인 고도울리야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전통들 중의 하나에 의하면 첫 번째 지어진 사원은 현재 위치한 곳으로부터 시바의 삼지창의 끝의 끝이 도시의 부분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고 생각되어졌던 수 백 미터 위쪽의 언덕 위에 지어졌다.

13 세기에 라지야(무슬림 지도자)는 이 대지 위에 모스크를 세웠고 그 가까이에 새로운 비쉬와나트 사원이 지어졌으나 다시 무슬림 들에 의해 파괴되어졌고 17 세기에 그 장소에 또 하나의 모스크를 세웠다. 이 모스크는 간바빠 모스크라 불리는데 오늘날 이 토지가 그들의 것임을 주장하며 되찾으려고 하는 힌두 근본주의자들과 함께 많은 마찰이 있는 곳이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항상 경찰들이 상주하고 있다. 오늘날의 비쉬와나트 사원은 18 세기에 세워졌는데 모스크를 바로 따라 지어졌으며 그 둘 사이는 오직 간바빠 우물-지혜의 우물, 에 의해 나누어진다. 이 우물은 순례자들을 위해 중요한 장소인데 그 물을 마시며 의도하는 서원을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또한 일반적으로 비쉬와나트 사원에 들어가기 전에 우물물을 마신다. 비쉬와나트 사원 지역은 긴장된 환경으로 둘러 쌓여있다. 수천의 사람들이 숭배를 위하여 이곳에 오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 지역이 바라나시의 주요한 강력한 진의 하나라고 말해야만 할 것이다.

다샤쉬와메다 가트

다샤쉬와메다 가트는 주요한(main) 가트로 알려져 있는데 항상 활동의 북새통이며 가장 유명한 것 중의 하나이며 바라나시의 고대의 가트이다. 이곳에서 목욕하는 것은 당신의 삶에 많은 열매를 가져올 것이다. 어느 순례자들도 이곳에 오는 것은 필수이며 그래서 대나무로 만든 우산 밑에 제방을 따라 앉아있는 제사장들은 번창하는 사업을 한다. 이 장소들은 힌두들에게 특히 영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왜냐하면 이 가트에서 오랜 고도울리야 강(비록 지금은 홍수 때가 아니면 없지만)이 강가 강으로 흐르곤 했다.

(왜냐하면 힌두들은 일반적으로 강물들이 만나는 장소들은 행운이 있다고 생각해왔다.) 힌두의 "삼위일체"(브라마, 시바, 비쉬누)인 세 주요 신들은 또한 이 지역의 주요한 핵심이다. 브라마는 시바에 대한 경외로서 이곳에 두 개의 시바 링가를 세웠다고 추측되어졌다. 이 지역은 또한 비쉬누의 가슴을 재연한다고 추측되어졌고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비쉬누의 실재 속에 목욕하여 복 받았다고 여긴다. 이 가트의 부분은 프라야그(알라하바드) 성지를 상징함으로 이곳에서 목욕하는 것은 그곳에 간 것만큼 아주 강력하다. 신화중의 하나는 브라마가 열 마리의 말을 이곳에서 희생 제물로 드렸다 라고 말한다. (바로 그 장소에서 희생제사는 거의 행해지지 않지만 비옥함과 창조, 왕을 신성하게 하기 위한 의식은 행해진다.) 2 세기경에 몇몇 바라시바 왕들은 쿠산 왕들에 대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열 마리의 말 희생제사를 하였다. 바라시바 왕들은 시바의 추종자들이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질문할 수 있다. 이 희생제사가 시바가 안으로 들어와서 그 자신을 이곳에 세우는 그 이면의 세력을 위한 열린 문이었는가? 이 가트에서는 또한 시원하게 하는 여신으로 알려진 시팔라 여신에게 봉헌된 사원이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바라나시에 있는 수백의 시팔라 사원중의 하나이지만 다샤쉬와메다 가트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중요하다. 이 여신은 배우자가 없으며 특히 천연두 질병을 주거나 막는다. 대단히 경외되는 시바 링가의 하나가 이 사원에서 발견된다. 새롭게 결혼한 사람들도 승배를 위하여 시팔라 사원에서의 의식에 뒤따라 이곳 강가에 온다. 이 다샤쉬와메다 지역에서 사람들은 쉽게 속임수, 혼돈, 탐욕, 죽음과 잔인함이 따르는 자만과 공포(특히 시팔라 사원에서)를 식별할 수 있다. 이 곳은 수많은 축제들과 순례여행들을 위한 주요한 장소이다.

쫄쫄띠 데비 사원과 가트

쫄쫄띠(쫄쫄띠) 가트(또한 라나 마할 가트라고 알려진)는 확실히 북쪽의 쫄키 가트와 남쪽의 시팔라 사원에 있다. 이 사원은 가트로 내려가는 가파른 계단들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쫄쫄띠 데비는 상냥하게는 쫄쫄띠 마이(어머니 쫄쫄띠)라고 불리어진다. 그녀 뒤에 이름지어진 사원은 가난한 미망인들의 피난처이며 또한 벵갈리 톨라 지역의 사람들로 붐빈다.

이 사원은 64 요기니(일찍이 바라나시의 신화에서 언급된)들이 한 사원에서 숭배되는 유일한 장소(비록 그곳에는 오직 60 만 있지만)이다. 그들은 또한 도시의 다른 지역들에서 단수의 우상들로 숭배된다. 예를 들면 까마키야, 후에 까마차 지역이 이름 붙여진다.

이야기들 중의 하나는 시바가 도시를 지배하고자 그 당시의 지배자 디보다사로부터 도시를 뺏기 위하여 64 요기니(여자 요기)를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을 속이는 데 실패하였고 실패한 후에 그들은 까시에 머물기로 결정하였다. 결국은 미련한 사람은 "해방의 보물"이 그 안에 있는 바로 그 배(vessel)를 떠나기를 원하였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이 지역을 위한 특별한 날들은 짜이뜨라의 절반 12 번째 어두운 나바라뜨라(여신의 아홉 밤)이며 순례자들은 사원을 방문하고 가트에서 목욕을 한다. "홀리"의 저녁과 다음날 사람들은 축제하러 이곳에 온다.

가트의 꼭대기에는 또한 까시 지요띠시 빠리사드(점성가들의 연합)를 위한 장소가 있다.

깨다라 사원(깨다르 가트)

깨다라 사원은 강가 강의 제방의 언덕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샤쉬와메다 가트로부터 남쪽으로 도보로 10 분 거리에 있다.

전설은 말하기를 바라나시는 바라나시에 사바의 각 삼지창의 끝으로부터 파생된 각 언덕인 세 개의 언덕이 있는 것처럼 정확히 시바의 삼지창의 세 끝으로 유지되어지고 있다고 한다.

깨다라 사원이 위치한 곳은 시바의 삼지창의 세 번째 끝에 의해 형성된 언덕이다.

이 지역은 벵갈인들과 남인도 사람들 사이에 아주 유명하며 거룩한 남인도 구획의 핵심장소이다. 실제로 사람들은 깨다라 지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해진다.

바로 사원 밑으로 강가 강과 연하여 고리 꾀드라고 불리는 작은 꾀드(pool)가 있다. 만약 당신이 이곳에서 목욕한다면 당신의 죄들이 씻기어졌다는 것이 더욱 확실하다.

바라나시의 많은 신들의 많은 형상들이 깨다라 사원에서 발견되어진다. 사원 안의 분위기는 매우 격렬하며 활동으로 가득 차 있다. 특히 월요일 시바의 숭배 때에는 이 지역에서 우선순위를 취한다.

까막차

여신 까막쉬 데비의 이름 뒤에 붙여진 전 지역이 까막차라고 불리는 도시의 지역이 있다. 그녀는 "사랑의 눈의 여신"이라 알려져 있다. 그녀는 또한 남인도의 중요한 여신들 중의 하나이다. 까막쉬 데비는 그녀에게 봉헌된 작은 사원을 이 지역에 가지고 있다. 비록 적지만 그녀에게 뿌자(숭배)를 드리러 가는 끊임없는 사람들로 그곳은 아주 바쁜 장소인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이가 이 지역을 관찰하였을 때 그들이 까막쉬 데비를 방문하러 갔을 때 그는 내어 쫓김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을 인식할 수 밖에 없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저 멀리서 외쳐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장소에서는 그들로부터 모든 삶의 희망을 빼앗고 사람들의 삶을 빨아들이고 있는 악의 형태로서의 실제적인 악의 인식이 있었다. 이 여신은 확실히 이 전지역에 가장 강력한 진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 지역에서 살펴볼 수 있는 다른 장소들은 바둑 바이라바 사원과 바이디야나타 사원이다. 바이디야나타는 의술의 주로 알려져 있으며 시바의 12 빛의 링가 중의 하나가 이곳에서 발견되어진다. 속임수와 무관심, 거짓된 위안 그리고 교만이 몇몇의 증보기도 자들에게 느껴졌고 이 장소가 도시에 있는 의료 전문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이 또한 들어왔다.

샨코다라 꾀드

샨코다라 꾀드는 까막차 지역 아래 도시의 남서쪽에 위치해 있다.

샨코다라의 의미는 샹카의 구원이다. 이 문맥의 샹카는 살해되어지고 크리쉬나에 의해 구원된 귀신의 이름이다. 까시에서 그 이름은 아주 오래되고 지상의 보물을 지키고 소유하는 거대한 나가(뱀)에 부속되어진다.

불교 경전은 지상의 네 부분을 지탱하고 있는 인도의 네 나가(뱀)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샹카는 까시의 나가이다. 심지어 부처의 시대에도 수많은 샹카의 추종자들이 있었다. 크리쉬나의 수도인 드와르카 또한 이곳에서 상징되어진다. 바이쉬나바스(비쉬누를 추종하는 사람들-역자 주)들이 이곳에서 살며 이곳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젊은 소년들에게 산스크리트를 가르친다. 이것은 라마 난다(15세기 바라나시의 현신된 지도자)의 전통 가운데 있다. 이곳에 존속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900년 이상 된 것들이라고 말해진다. (비쉬누 시대의 부분들)

힌두 월력 쉬라와나와 바드라빠다(비 오는 계절 동안)는 이 지역의 순례여행을 위하여 중요할 뿐만 아니라 멜라(축제)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19세기의 엠. 에이. 쉐링은 이곳의 멜라에 참여하는 군하리스(낮은 명성의 여성 가수들)의 패거리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엠. 에이. 쉐링에 의하면 명성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지 않는다.

이 지역의 환경은 매우 평화롭고 새로운 신당이 오는 것 같은 시골같이 보이지만 우리들은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을 발견하였다.

끼나 램 아스텔(바바 끼나 램 에스텔)

끼나 램 아스텔은 바라나시의 관광지도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지만 우연히 우리들에게 마주쳐졌다. (오토릭사 운전사가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인도할 계획이었으나 대신에 우리를 그곳에 내렸다.) 그곳은 시왈라 가트에 근접해 있다.

정문 양쪽에 3개씩의 해골 형상이 있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그것은 일종의 당신의 시선을 빨리 붙잡는 것이다.) 이것은 17세기에 바바 끼나 램에 의해 세워진 아고리스를 위한 아쉬람이다. 아고리스는 극단적인 시바의 추종자들인데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거꾸로 바꾸는 탄트릭 수행자들이다. 그들은 음식을 수집하려고 해골을 사용하며 화장터를 무상 출입하며 화장하다 남은 장작에 그들의 음식을 요리한다. 그들은 심지어 죽은 자의 시체를 먹고 무덤에서 잠을 자며 포도주를 마신다. 그들은 우상(비록 그곳에 링가가 있지만)보다는 실재를 숭상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한정적으로 이 지역이 주술적 활동이 실재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끼나 램은 카라치로부터 이곳에 왔는데 그와 함께 여신 깔리의 이야기들 중의 하나를 가지고 무슬림의 계속되는 침입을 피하여 바라나시에 왔다. 여기에서 그녀는 그녀의 성스럽고 탁월한 크링(Kring)을 가진 잉글라찌로 알려진다. 끼나 램은 목상 중에 사망하였고 그래서 그는 성인으로 알려졌고 그의 주변에 사원이 건립되었다. 비록 그것이

아고리스가 의미하는 것과는 반대처럼 보이지만 이 단체의 11 대 마한트 인 바바 바그완 람은 나병환자의 치유를 위한 쉐 타를 건립하였다. 그는 1992 년경 미국에서 수술 중에 사망하였다.

아쉬람 대지에는 크링(Kring) 쿤드라 불리는 쿤드가 있는데 그것은 피부병, 스카비스와 말라리아를 가진 사람들에게 특별한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여겨진다. 사람들은 남자아이를 얻기 위하여 이곳에서 목욕을 한다. 일요일들과 화요일들은 특별한 날이다. 이 지역은 영적인 영역에 특별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롤라르카 쿤드 / 돌시 가트

돌시 가트는 도시의 남쪽 앳시 가트의 북쪽 강가 강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에 돌시 다스가 수년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여졌다. 많은 음악축제들이 이 도시의 남쪽 앳시 가트의 북쪽 지역에서 개최된다.

롤라르카 쿤드는 돌시 가트의 바로 서쪽에 위치해 있다. 그곳은 태양과 나가(뱀) 숭배를 위한 장소이다. 한 때는 태양이 12 개로 나누어졌는데 주요한 태양이 롤라르카 쿤드에 있었다고 여겨졌다. 그 쿤드는 아주 깊으며 계단을 가진 긴 길로 아래 고여있는 물로 내려간다.

사람들은 8 월/9 월의 한 특별한 날에 아들의 출생을 위하여 이곳에 온다. 부부는 함께 이 쿤드에서 목욕하며 그들이 아들을 낳은 후에 과일을 봉헌하러 찾아온다. 이 특별한 날에 만 명이(특히 둘러싸인 시골로부터) 숭배 등등을 위하여 모일 것이다. 그 해의 다른 기간에는 쿤드는 상당히 조용할 것이다.

롤라르카 쿤드로부터 돌시 가트 사이 지역에는 수많은 작은 사원들로 채워져 있는데 특히 이 지역에서는 영적 분위기가 아주 무거움을 느꼈다. 희망 없음, 속임수, 무관심, 광적인 신앙, 두려움, 협박과 신비주의가 이 지역전역에서 중보기도 자 들에게 느껴졌다. 그들은 또한 경배가 이 지역에서 강력한 무기임을 인식하였다.

두르가 쿤드

두르가 쿤드는 벨라뿌라- 랑카 도로의 도시의 남쪽- 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수많은 사원들이 있는데 주요한 사원은 쿤드의 남쪽 두르가 사원이다. 두르가 여신은 이 지역에 견고히 서졌으며 실제로 수 세기동안 이 지역에 알려지고 있다. 그녀는 바라나시의 거룩한 영역을 지키는 홍폭한 여신 문지기이며 남쪽으로부터 바라나시를 보호한다고 말해진다. 두르가는 빈디아 산맥(바라나시로부터 50km)으로부터 기원하였으며 또한 빈디아바시니 데비로 알려졌다. 그녀가 두르가의 이름을 가진 것은 그 이름을 가진 괴물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녀가 괴물을 죽인 후 두르가 쿤드에서 휴식하고 있었을 때 그녀의 칼이 손에서 떨어져서 앳시 강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들 중의 하나가 진행된다.)

두르가 꾀드의 두르가의 형상은 사원의 중요성을 부각하려고 더해진 자아 현신 이라고 말해진다. 두르가 사원에서 또한 발견되는 것은 바이라 바와 락시미, 사라스와띠, 외 소수의 언급들이다.

그녀의 숭배를 위한 특별한 날은 화요일과 토요일인데 많은 코코넛이 그녀에게 봉헌물의 형태로 주어지며 또한 염소도 희생된다고 알려진다. 오늘날의 힌두 신학에서는 두르가 여신이 깔리, 고리와 같은 다른 여신들의 하나라고 주장된다. 이 장소는 두려움과 기만, 마술, 성냄 그리고 빈번한 조소의 영들을 가진 영적인 영역 속의 실제적인 영향력의 장소임이 느껴졌다.

뿔시 다스 마나 사원

뿔시다스 사원은 랑카로 가는 도로의 두르가 꾀드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다. 그것은 1964 년 에 뿔시 다스를 높이기 위해 힌 대리석으로 지은 것으로 그것은 종종 비말라 사원(흙없는 자)으로 불리며 바라나시에서 두 번째로 큰 사원이다. 이 사원은 특히 시골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데 그들은 종종 그 크기와 밝음에 의해 압도된다. 비쉬누의 화신인 람이 이 사원의 주요한 초점이다.

실내 벽에는 뿔시 다스에 의해 쓰여진 전체 람차리트마나가 대리석 판 위에 새겨져 있다.

사원의 뒤쪽에 있는 것은 라마야 나로부터 다양하게 잘 알려진 장면들을 보여주는 움직이는 인형들의 형상의 묘사이다. 정문 옆에는 그의 서사시를 넘기며 람을 되풀이하는 움직이는 인형 뿔시 다스가 있다. 뿔시 다스는 16 세기의 위대한 시인이요 성인이었는데 그는 힌두 문학에 헌신하였다. 그는 산스크리트 문학을 제사장들의 언어에서 평민의 언어인 힌디로 번역함으로 얼마간의 폭풍을 일으켰다. 비록 그는 비쉬누의 추종자였지만 까시의 주인인 시바를 찬양하였고 까시의 모든 남자는 시바요 모든 여자는 빠르빠띠라고 이 장소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싼카트 모찬

싼카트 모찬은 랑카 행으로 두르가 꾀드의 오른쪽 편에 있는데 두르가 꾀드로부터 도보로 10 분 거리에 있다. 싼카트 모찬은 곤란의 해결사인 원숭이 신인 하누만에게 봉헌되어졌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의 의견에 따르느냐에 따라 바라나시에서 3 번째로 유명한 사원이다. 이곳은 또한 축제들과 낭송 그리고 종교적인 설교를 위하여 중요한 장소이다. 이 사원의 바닥은 사원주변의 수많은 나무들로 매우 시선을 끄며 당신이 원숭이 신인 하누만에게 봉헌된 사원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많은 원숭이들이 바닥 전역으로 어슬렁거린다.

하누만은 뿔시다스의 시대였던 16 세기 바라나시에서 출발한 전통으로부터 유래한다. 하누만은 비쉬누의 화신인 람의 충직한 원숭이 종이었다. 싼카트 모찬에서 사람들은 비쉬누의 영향을 볼 수 있다. 하누만 사원에서는 또한 많은 시바의 사진들이 있다. 화요일은 하누만을 위하여 중요한 날이다.

이곳에서 얼마간을 보냈던 중보기도 자들은 이 장소에 지배적인 영들인 두려움과 기만(거짓된 평화)으로 중압감이 있음을 느꼈다. 그곳에는 또한 이 곳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광신적이며 자만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이 보여졌다. 이 지역은 지역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교회에 불일치를 가져오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다.

바나라스 힌두 대학교(B. H. U)

B. H. U 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대학 중의 하나이다. 이 대학교는 도시의 남쪽에 2000 에이커의 대지를 가지고 바라나시의 성지지역 바로 바깥에 위치하고 있다. 이 대학교는 아일랜드의 여성 애니 베산트의 도움과 함께 마단 모한 말라뵤야에 의해 설립되어졌다. 그녀는 인도의 모든 문제점들이 인도 고대의 사상들과 협회들의 회복과 재도입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고 굳건하게 믿었던 열성적인 신지협회 회원이었다. 그 견해는 이 대학교가 여전히 강력한 전통을 향한 태도를 가지고 가장 좋은 최근의 서구 교육을 적용시키는 것이었다. 이 대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인도 전역으로부터 기금이 모금되었다. 거리의 청소원에서 귀족까지 모든 계급의 사람들이 기금을 아낌없이 주었으며 첫 번째 수업이 1917 년에 시작되었다.

학생들이 인도 전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 이곳에 공부하기 위하여 왔다. 대학교에서 가르쳤던 과목들은 다양하였다. 이 대학교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일으킨 명성을 가지고 있다. B. H. U 는 종종 학생 분류에 의해 곤란이 있어왔고 때때로 다른 선동들로 인하여 문을 닫았다. 학생들 중의 어떤 이는 아주 군사적이다. 대학교에서 생활하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알. 에스. 에스와 같은 과격한 힌두 그룹들 때문에 아주 어렵다. 바라나시에 세워진 세 개의 비쉬와나트 사원 중 하나가 이 대학에 있다. 이곳은 도시에서 가장 큰 사원중의 하나이며 시바에게 봉헌되어졌다. 사원의 크기와 관광객들과 순례자들에게 카스트나 종교, 국적에 관계없이 환영하는 태도 때문에 대단히 유명하게 되었다. 몇 년 전에 이집트 기독교인들의 작은 그룹이 이 사원 안으로 들어가서 사원의 큰 스피커로 아랍어로 주를 경배할 수 있었다. 그것은 강력한 시간이었다.

바라나시의 축제들

순례여행과 입문 의식, 종교적인 축제들을 통하여 특별한 지역 위에 지역적인 진지들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데 그 이유는 숭배의 행위를 통하여 사람은 한 특별한 "신"에게 그 자신을 주어 자신을 통치할 권리를 주기 때문이다. 주요한 축제들이 개최되기 몇 일 전부터 사람들은 정말 영적인 영역에서 악의 영들이 사람들이 다시 그들에게 특별한 장소를 통치할 권리를 줄 기대 속에 대단히 흥분되어졌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우리는 주요한 축제들 보다 앞서가는 사람들 속에서 느껴지는 변화에 의해 이것을 증명할 수 있다.

사람들은 더 큰 좌절과 성냄, 다툼 등이 사람들 사이에 있음을 주지할 수 있다. 축제 때는 도시의 영들에게 길을 주지 않도록 항상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은 수준의 기도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통하여 축제로 인한 이 도시의 거짓된 숭배의 영향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바라나시의 사람들에 따르면 모든 날들이 이 "거룩한"도시의 축제일이다.

제 3장

사역 보고서

12월 31일

(1) 일정

- 10시 40분 센터도착
- 11시 00분 전략회의
- 11시 50분 위십 연습
- 12시 30분 취침

전략회의

- 위십 신년예배 - Shout to the Lord,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전자만 하기로.
- 예배시간, 말통시간 - 매일 저녁식사 후 하기로 결정. 스케줄 잡지 않고 예배로만 드릴수 있도록. 순서(말통-전략회의-예배) 정함. 예배인도는 돌아가며 하기로. 말씀 나눔은 짧게.
- 미디어 회의 - 캠코더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 음소거 된 상태. 일단 디카로 사용하기로.
- 총무부 회의 - 후원금 분실. -> 찾음.

(2) 리서치 및 사역 내용

도착한 날이므로 리서치가 없음

1월 1일

(1) 일정

- 7시 기상 및 세면
- 8시 묵상 및 나눔- 로마서 6장 1절~13절
- 8시 50분 아침 식사
- 9시 35분 현지 교회로 이동 (Delhi Central Baptist Church)
- 10시 30분 예배 및 성찬식
- 13시 30분 점심 식사
- 14시 30분 시크교 사원 도착 및 땅밟기
- 13시 30분 모스크 사원 도착 및 땅밟기
- 16시 45분 라지가트(RAJGHAT) 도착 및 관람
- 17시 50분 센터 도착

(2) 리서치 및 사역 내용

현지교회 리서치

- 일정 1월 1일 10시에 도착
- 이름 Delhi Central Baptist Church
- 교인수 : 신년예배이므로 300여명 가량이 왔음. 평소에는 20-30명 정도가 꾸준히 예배드린다고 함.
- 사역 : 위십 Shout to the Lord 두번 하였음. 찬송가 248장으로 특송. 떠나기 전 현지 교역자와 함께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였음.
- 관찰내용: 350 년 되었음. 델리에서 가장 오래되었음.
- 엄격한 분위기. CLAPPING을 금함.
- 예배시간 내내 문을 열어놓는 의미->무슬림 지역이므로 오픈된 구조가 필요함.
- 주변에 무슬림 사원, 시크교 사원들이 위치하였으므로 위치적으로 중요함. 영적인 중심이 되도록 기도해야함.
- 예배는 말씀-기도-말씀-기도-특송3번 등. 기본 3시간이라고 함.
- 예배 헌금 말고 성찬식 후 헌금을 따로 드림.
- 교회의 어른들에 대한 지위가 매우 높음. ->평균수명이 적은 나라에서 노인에 대한 지위가 올라간다는 의견.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 교회의 전통으로 인한 장로들의 위상이 높아짐.
- 지난 해 상당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함. 큰 의미는 없으나 우리나라와 다른 점.
- 성찬식때 전병은 동일함. 그러나 음료는 인도식의 특이한 음료.
- 크리스마스장식이 굉장히 화려. 시크교에 있던 장식과 동일. -> 문화의 영향.
- 연령대-가정단위의 집결. 특별한 날에만 온다. 인구 공동화 현상.

시크교 사원 땅밟기

- 일정 1월 1일 14시 30분에 도착
- 이름 PLACE OF MARTYRDOM
- 교인 뿐 아니라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음. 관광명소이면서 사원의 역할. 짧은 시간동안 순례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앉아서 제례를 드리고 가는 사람도 있음. 대략 한시간이 안되는 시간 동안 500 여명이 넘는 인구가 출입.
- 사원 내를 둘러보고 그들이 제례의식을 갖는동안 옆에 앉아서 기도함.
- 리서치 내용(김바울 선교사님 인터뷰)
시크교도들은 인도 전체의 인구 중 2% 미만임. 그러나 시크교도가 최근 인도의 수상이 되면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매우 증대하였음. 대부분이 상인계층이므로 경제적인 영향력이 크다고 함. 몸에 난 털은 깎지 않는다고 함. 머리를 파서 틀어 올려 두건을 쓴 사람들이 시크교. 빗과 칼과 쇠팔찌를 항상 소지함. 쇠팔찌는 정직함을

의미하고 칼은 용맹함을 상징함. 온화하며 용사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다. 종교 내 남녀차별은 없다고 함. 인도가 개화되면서 더욱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 그러나 포교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태어나면서 시크교도가 되기 때문에 포교활동이 없는 한 수적 부흥은 없을 수도 있으나 상권을 쥐고 부유층의 특수한 계층으로 자리잡게 될 가능성. 사원에 들어와 명상과 제례의식을 갖고 돌아감. 성전 자체를 매우 거룩히 여기며 계단과 온 장소에 키스를 함. 시크교의 스승 10명이 쓰던 물건을 쌓아두고 경배하고 그들의 경전에 부채질을 하고 있었음. 우상숭배한다며 힌두를 비판하고 생겨난 300년 전통의 종파이나 그들 스스로도 시크교를 상징하는 깃발을 숭배하는 등 우상숭배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신발 벗고 들어감. 성전 자체를 거룩히 여겨 계단과 온 성벽을 만져 키스하고 절한다. 입구에 창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있음. 이들은 죽기 이전에 들어와서 자발적인 일이었으나 지금 직업이 됨. 두건을 쓰고 들어감. 남자는 터번을 씼. 10명의 구루가 있는데 그들이 썼던 물건들을 신격화하여 경배함. 경제 규모의 60%-70%정도를 차지.

- 사원 방문후에 신의선물 '쁘라사드'를 받아 먹음. 받아 먹으면 건강하게 살수있다는 믿음.
- 신당앞에서 등을 보이면 안됨. 노래하고 반주하고 경전을 읽는 전임자가 있음. 뒤에 헌금함에 자연스럽게 헌금함. 정해진 시간 없이 사람이 차면 예배가 이루어짐.
- 매우 개인적인 종교. -> 힌두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

모스크 사원 (자마마지드)

- 일정 1월 1일 13시 30분 도착
- 이름 자마마지드
- 규모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원이라고 함. 1500년 중순에 건축. 사원내 35000명과 바깥 20000명까지 전부 55000명 수용 가능한 규모. 평소엔 그렇지 않지만 라마단 기간 중에는 그만큼 모인다고 함. 관광지로 사용되고 있음. 델리에서 고도가 매우 높은 곳에 위치하여 델리에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적세력임. 타지마할을 만든 왕 '샤자한'이 1570년대에 만든 건축물. 근본주의 무슬림들의 사원. 붉은 건물. 황토빛. 황폐한 느낌. 까마귀가 매우 많음. 비둘기도 많음. 신발을 벗고 들어감. 20루피로 탑 올라가는 입장료. 꾸란이 무슬림에게만 대여가능한데 땅바닥에 닿아서는 안됨. 기도시간이 되니 나가라고 함. 메카방향으로 사원탑이 향해있음. 사원 내를 돌아보고 탑에 올라가 델리 시내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 기도를 함. 사방으로 돌아보아 전 팀원이 기도,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 사건: 카메라 금지 지역에 카메라 가방을 그대로 메고 가 문제가 됨. 사원 방문 후에 라지가트로 이동 할때에 릅샤를 이용하여 4대가 출발하였는데 란자매, 미애자매를 태운 릅샤가 무리를 이탈해 다른 곳에서 하차하여 팀원과 헤어지게 됨. 형제들이 찾아나서 대략 15쪼 후에 재합류. 자매들을 태운 릅샤가 6배이상의 돈을 요구함. 결국 15루피를 더 받음. 실시간 연락이 되지 않고 힌디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므로 이동시에 함께 다닐 것을

약속하거나 계속 주시해야겠다. 또한 개개인이 선교사님의 연락처와 센터 주소 및 비상금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선생님 뿐 아니라 모든 팀원이 이동하는 정확한 지명을 알고 가야하겠다. 형제간, 자매간 다니는 것이 문화적으로 어려울수도 있으나 위험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섞여 다니는것이 좋을 듯 함.

라지가트(RAJGHAT) 공원

- 일정: 16시 45분 라지가트 (RAJGHAT) 도착 및 관람
- 리서치내용: 간디는 국부라고 칭함. 신격화 되어있음. 시신은 없으나 꺼지지 않는 불을 두고 무덤처럼 관광지로 만들어 놓았음. 조경이 매우 잘 된 공원이었음. 야무나강이 지나고 있음. 간디를 신격화 하는 것에 대하여 무슬림이 싫어함.

(3) 평가 및 반성

- 영필형제 : 사원들을 다니며 소리로 인해 많은 방해를 받았음. 혼미함. 화려하고 다양한 색깔들의 장식과 그림들로 인해 시각적인 공격을 받음. 무섭고 어지러웠다.
- 정하자매 : 추워서 힘들었음. 인도를 사랑한다 기도하며 품고 살아왔었는데 현지에 오니 돈 있는 여행객으로만 보는 속이려드는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다. 교회 성도들처럼 교양있는 사람들을 볼때는 잘왔다 싶었는데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보임.
- 요섭형제 : 구걸하는 사람들을 볼때마다 마음이 어렵고 사람들의 어이없는 행동들이 가없고 이해되지 않는다. 속이는 영이 인도에 존재함.
- 미애자매 : 예수님이 오신다면 인도사람들로 제자 삼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거지들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것이 수가 아니다.
- 간사님 : 돈을 써야할때 써야한다. 선생님의 밥을 해먹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였으면.
- 공통 : 교통, 경적소리, 거지들의 구걸 거절, 매연이 매우 힘든 상황.

(4) 사건사고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총무부에서 쇼핑하고 왔으나 정전으로 식사준비가 가능하지 않아 바깥으로 나감. 한국으로 국제전화를 함. 적당한 식당을 찾지 못하여 기름을 사서 들어와 조리하여 먹음. 첫날이라 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식당을 찾지 못하였음. 일정이 조금 늦어졌음.

1월 2일

(1) 일정

07시 20분 기상 및 세면
08시 00분 아침식사
08시 30분 특송준비
08시 50분 교회로 이동
09시 15분 현지교회 도착 및 예배
11시 45분 예배마침. 풍선아트사역
12시 30분 점심식사
13시 50분 인디아 게이트 & 대통령궁
14시 20분 힌두사원 (하누만)
14시 45분 방글라사합
15시 55분 간디 스프리티
17시 00분 저녁식사
18시 00분 센터도착
19시 50분 말씀통독
20시 20분 전략회의
23시 00분 기도회

(2) 리서치 및 사역 내용

인디아 게이트

인디아 게이트는 세계 1차 대전때 영국의 통치하에 있던 인도의 많은 젊은이들이 영국을 대신하여 많은 유럽, 아시아 전선에서 사망한 90,000여 인도 병사를 위로하기 위해 세웠으며 그 벽에 이름을 새겨놓았다. 그 높이가 42m에 달한다.

인디아 게이트는 대통령궁, 국회의사당과 연결되는 도로상에 있으며 그 일대는 인도의 많은 국가적 행사의 무대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공화국 기념일을 위한 상당한 오랜 기간의 준비와 행사가 불만하다. 인디아 게이트 앞으로는 인도 국회의사당이 있다. 하원과 상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2년 파키스탄의 테러공격 이후로는 삼엄한 경계가 이루어져 일반인은 근처로 출입할 수 없다.

국회의사당 옆의 대통령궁은 대통령의 직무를 위한 공식적인 건물로서 일년내내 쇠창살로 굳게 닫혀져 있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안으로의 입장은 거의 불가능하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외적으로 상징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수상에 비하여 실권이 없는 대표의 역할을 할 뿐이다. 인도인들에게 리퍼블릭데이가 매우 큰 의미가 있는데 (1월 25일) 그 날의 행사를 위하여 인디아 게이트에서 장기간 준비하는 중이었다.

하누만 사원

여러 신 중 하누만 (원숭이 신의 이름) 을 섬기는 템플이다. 원숭이는 힘을 상징한다.

하누만을 섬기는 사람들은 화요일에 그들만의 행사 (예배) 로 인해 화요일에는 바나나를 먹지 않는다. 사원 안은 매우 더럽고 칙칙했다. 역시나 신을 벗고 맨발로 들어간다. 사원에 들어가는 사람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신을 깨우기 위해 종을 힘껏 쳐댄다. 신은 1시부터 3시까지 잠을 자므로 신의 우상이 있는 곳을 잠궤둔거나 신을 목욕시킨다.

돌 내지는 시멘트로 만들어진 우상에 사람이 먹는 음식을 가져와 입에다 비벼댄다. 신에게 주는 선물이란 뜻으로 ‘쁘라사드’ 라고 하는데 신이 받아 먹는다고 믿는다.

한편에 힌두에서 파생된 옴진리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옴이란 삼라만상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도에 이르는 사람만이 두성으로 ‘옴’ 이란 소리를 낼 수 있다고 믿으며 이것은 곧 절대경지에 이르름을 나타낸다고 믿는다. 한국에서 흔히 보던 불교 상징이 많았는데 그것은 불교가 힌두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이다. 힌두교에서 카스트 제도의 타파를 외치며 나온 것이 불교인데 인도에서는 카스트제도의 확고함으로 인해 힘을 쓰지 못하고 그 위로 세력을 확장하여 대승불교 소승불교로 나뉘어 포교활동과 중생들의 구원을 중시하는 대승불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등지로 퍼져나갔고 개인의 구원에 목적을 두는 소승불교는 인도차이나로 확장되었다.

간디 스프리티

간디는 인도의 국부 라고 불리우는 존재이다. 간디는 인도의 불가촉천민을 신의 아들이란 뜻의 하리잔으로 부르며 이들의 인권보호에 앞장서왔다. 여성운동에 매우 관심이 있어 여성인권의 신장에도 큰 역할을 했으며 인도내에 그 영향력이 매우 대단하였다. 1월 30일에 간디가 총을 맞아 죽은 장소이며 총을 맞고 끝까지 걸었던 길을 따라 발자국을 남겨 그의 무덤을 장대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그 앞의 길은 띠스 재뉴어리 로드 라고 불리운다. 간디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다. ‘My life is my message’ 이다. 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을 받을만한 삶이었으며 위대한 삶을 살았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인도사람들은 그를 국부로 추앙하다 못해 신으로 만들어 그의 우상에 절을 하며 복을 빈다.

1월 3일

(1) 일정

7시 30분 기상 및 세면

9시 00분 아침묵상모임

10시 40분 선교사님과 미팅 및 인터뷰

13시 30분 사역지 도착 (무슬림 사역지)

16시 00분 니잠무딘 지역에서 환전 및 점심식사
15시 30분 선교사님 댁 방문 및 저녁식사
11시 05분 말씀통독
11시 35분 전략회의
11시 55분 예배

(2) 리서치 및 사역 내용

전세계의 무슬림은 공식적으로는 10억, 실제로는 12억정도로 추산한다. 무슬림 전체인구 10억중에 인도네시아가 무슬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로써 총인구 2억 중 1억 8천만으로 추산한다. 무슬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 2위가 바로 인도이다. 대략 1억 5천만에서 1억 6천만으로 추정하는데 이 무슬림들은 대부분 북인도에 살고 있으며 인도에서 독립한 무슬림나라인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을 모두 합치면 그 인구는 4억으로 전세계 10억 무슬림중 4억이 인도 무슬림권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할 수 있다.

인도는 힌두국가라는 인식 때문에 무슬림사역이 전무한 가운데 있다. 인도 무슬림 한국인 사역자는 대략 10가정이 채 되지 않는다. 이번 쓰나미 해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인도네시아이다. 13만명이 죽었다고 공식발표 했으나 이후로는 집계를 포기해버릴 정도로 최대 피해국가이다. 20만여명이 지진으로 죽은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국가에 가장 큰 피해가 있었던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근원세력의 영향을 영적인 눈으로 파악해야만 한다.

인도내에 크리스찬은 2.4% 인데 2천 4백만명 중 동인도와 남인도에 집중되어 살아가고 있다. 동인도는 80~90% 가 크리스찬이며 남쪽에 500만 내지 600만명이 살고 있다. 나머지 땅에는 크리스찬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우타 프라데시 주가 가장 인구가 많은 주로 1억 8천만명인데 그 중 크리스찬은 30만명뿐이다.

인도는 무슬림과 기독교가 예외적으로 부딪치지 않는 유일무이한 장소이다. 왜냐하면 힌두교에 의해 무슬림과 기독교가 무참히 핍박받기 때문에 같은 마이너리티로써의 동질감으로 무슬림의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힌두에서는 RSS, 시브세나와 같은 몇 개의 사병조직이 있어서 무슬림을 공격하는데 최근에도 지속적인 무슬림 테러 및 공격이 있었고 이전 정부로 인해 지원을 받을 정도로 세력이 커왔으나 최근 정당이 바뀌면서 조금 잠잠해졌다고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덜 한 북인도 무슬림지역은 복음의 열매가 큰 땅이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임에 비해 무슬림의 알라는 정죄의 하나님으로서 존재한다. 인도내의 무슬림은 특별히 수피즘으로 나타나는데 수피즘이란 무슬림 전통신앙안에 신비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것을 일컫는다. 힌두의 오랜 영향을 받아 문화를 포용하기 시작하면서 수피즘이 나타났는데 무슬림 내에서는 전통신앙이 아니기에 인정하지 않으나 인도내의 무슬림은 대부분 수피즘으로서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

무슬림 사역 방법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외부자 사역과 내부자 사역이 그것이다. 외부자 사역은 직접 무슬림 사람 가운데 교제하며 복음을 차차 전하는 방식이나 열매가 적고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내부자 사역은 상황화, 토착화하여 그들의 형식을 다 받아들이며 본질만 그리스도로 옷입는 방법이다. 내부자를 세워 내부자 사역을 하면 열매가 매우 크다. 그러나 상황화를 몇단계까지 하느냐는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 때론 본질을 놓칠 수도 있어 위험하기도 하다.

(3) 평가 및 반성

니잠무딘 무슬림사역지에 들어갔다. 인도 내 무슬림은 문맹율이 매우 높고 교육수준이 매우 낮으며 경제적으로도 거의 빈곤층에 속하기 때문에 사역지내의 사람들은 한평반이나 두평정도밖에 되지 않는 집에서 살고 있었다. 구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을 교육시키려 내보내는 것을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여 낮은 교육과 높은 문맹률은 답습된다고 한다. 풍선아트로 마을의 아이들에게 선물하였으나 아이들이 선물을 받고 집에두고 또 와서 가져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100개의 분량이 적음을 알게 되었고 결국 모든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오히려 아이들끼리 싸움이 나는 일도 벌어졌다. 텔리의 니잠무딘 사역지가 아니더라도 풍선아트를 준비할 때에는 남더라도 충분히 많은 풍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사건사고

선교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사역을 둘러보게 될 때에는 선교사님께 물질적으로 후원은 하지 못할망정 피해를 드려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선생님께서 알아서 지출하시는 부분, -예를 들어 택시 렌트비라던지 식사추천이라던지- 에 대해 재정상황이 영향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초기 예산책정에 있어 여유있는 예비비 책정이 좋을 것이다. (2004년 1월 텔리 택시 렌트비용 -800루피)

1월 4일

(1) 일정

08시 30분 목상모임
10시 00분 선교사님 댁으로 출발 & 기차역으로 출발
13시 40분 영화관 도착
17시 00분 서점 도착
17시 40분 선교사님 댁으로 이동
21시 40분 말씀통독
22시 05분 전략회의
23시 05분 예배

(2) 리서치 및 사역 내용

두팀으로 나누어 한팀은 기차역으로 출발하였고 한팀은 선교사님 댁에서 선교사님 자녀 과외공부를 하였다. 사역이 끝나고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인도에서 제일 유명한 연예인, 샤루칸이 출연하는 영화 ‘스와데시’를 보았다. 스와데시는 ‘조국’라는 뜻이다. 내용은 인도에서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여 미국의 NASA 에서 근무하며 미래가 보장된 인도청년이 부모가 없던 자신을 길러주었던 유모를 더 살기 좋은 미국으로 모셔가 살기 위해 인도로 2주간의 휴가를 얻어 돌아오게 되는 장면부터 시작한다. 더 살기 좋은 미국으로 유모를 모시려하지만 유모는 인도에서 살기를 희망하며 가지 않으려 한다. 유모의 집에는 그 인도청년처럼 유모의 손에 길러져서 깊은 시골에서 교육만이 희망이고 인도는 변화될 수 있다는 개화된 사고를 지닌 교사인 여인이 함께 살고 있다. 전통을 준수하며 인도를 바꾸어나가려는 의지를 가진 여인과 자신의 창창한 미래를 가지고 유모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청년은 계속해서 그 사상적인 부분에 부딪힌다. 유모는 청년에게 가르침을 주려 자신의 소작농에게 빚을 받아오도록 청년에게 심부름 시키게 되고 깊고 깊은 시골로 돌아가 매우 가난하여 소출이 없는 소작농을 보고 처음으로 자신의 조국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조국에 돌아와 한번도 인도물조차 마신적이 없었음을 깨닫고 진심으로 눈물을 흘린다. 이후에 청년은 시골에 학교를 세우는 일에,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일에,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자신의 지식을 활용해 시골마을에 전기를 발전시키는데 성공하며 인도에서의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결국 5주째 인도에서 유모의 마음을 설득시키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이 점차 바뀌고 있음을 깨닫는다. 결국 미국 NASA로 돌아가지만 그는 다시금 자신의 조국 인도를 발전시켜야하는 임무를 깨닫고 조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전체의 스토리이다. 이 영화는 실제로 그 청년의 대사를 통해 인도의 카스트 문제와 여성의 문제, 교육의 문제, 그리고 엘리트층의 이기적인 삶의 양태를 적절하게 비판하였고 인도 내 거주하는

선교사들이나 교민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영화가 개봉된 후에 인도의 각계 언론에서 신랄하게 비판하며 인도를 비판한 이 영화를 매우 혹독하게 평가했다. 인도는 역사적 관점으로 볼 때 식민통치를 받으며 그 저항이 매우 컸었고 ‘Our India is Great’ 라는 슬로건이 모든 국민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만큼 자신들의 조국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하다. 어딜가서나 인도사람과 대화할 때면 ‘인도는 위대하다’ 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으며 리퍼블릭 데이가 다가오는 즈음이라 길거리의 버스 등지에도 ‘인도는 위대하다’는 슬로건이 붙어있을 정도로 그 프라이드는 대단하다. 이러한 국민적 정서에 인도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한 영화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변화를 싫어하고 오래된 것을 더욱 좋아하고 스스로 고립될 것을 선택할 만큼 조국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진 민족정서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3) 평가 및 반성

선교사님 가정에 실질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역에 제일 필요한 부분은 물론 첫째가 사람이고, 둘째는 자녀 교육이다. 그들을 가르칠 때 최근 책이 아닌 과월호라도 지속적인 교재를 줄 수 있으면 매우 좋고 특히 한국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책이나 영화, 사회 및 국사 교과의 교습이 요구된다.

1월 5일

(1) 일정

- 07시 40분 기상 및 세면
- 08시 20분 아침식사
- 08시 50분 말씀묵상
- 10시 50분 무슬림 대학 및 선교사님 자녀 사역팀 출발
- 14시 00분 니잠무딘 사원 도착
- 17시 00분 화장터 도착 & 무슬림 공동묘지 도착
- 21시 00분 말씀통독
- 21시 20분 전략회의
- 22시 50분 예배

(2) 리서치 및 사역 내용

니잠무딘 사원

12C 말 니잠무딘이란 사람이 살았던 곳을 사원으로 건축했다. 수피즘의 영향을 받은 모스크 사원이다. 무슬림은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어 지는데 수니파가 전체의 90-95%에 이르고 시아파는 5% 정도로 볼 수 있다. 이란은 거의가 시아파이다. 이란 다음으로 시아파 인구가 많은 곳이 바로 인도이다.

니잠무딘 사원은 수피즘으로써 가장 인도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원이다. 일반적인 무슬림 사원에서는 볼 수 없는 색색의 끈을 묶으며 기도하는 사람들과 향을 피우는 등의 힌두이즘이 섞인 모습이 나타난다. 목요일 저녁마다 이 곳에서 집회가 열리는데 병자가 일어나고 고침받는 등의 능력이 일어나고 있어 그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다고 한다. . 이 사원의 영향력 때문에 근방 지역의 이름이 ‘니잠무딘’이 되었다. 그만큼 영적으로 매우 강한 진이 바로 이 곳이다. 무굴제국의 황제였던 샤자한의 딸이 니잠무딘을 사모하여 100여년이 지난 이후에 니잠무딘 묘 옆에 묻혔다. 여자는 니잠무딘의 무덤으로 들어 갈 수 없고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물처럼 초록색 천을 사서 들어가 무덤을 덮고 그 위에 꽃을 뿌리고 한바퀴를 돌아 그 발앞에서 무릎꿇고 무덤에 손을 대고 키스하며 경배드리고 나간다. 내부로 들어갈 수 없는 여인들은 밖에서 사원 벽에 끈을 묶으며 소원을 빈다.

화장터 (힌두)

화장터는 한국에서는 보통 혐오시설로 분류되는데 반해 힌두사람들의 화장터는 시내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 이것은 죽음과 삶이 이들에게 매우 친숙하며 부정한 것으로 치부되지 않는 문화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화장터에는 시체 10구를 태울 터가 마련되어 있었으며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개방된 구조였고 화장할 수 있는 장소에 바로 나무를 쌓고 시체를 올려놓은 후 또다시 나무를 쌓고 태운다. 시체는 대략 8시간 정도 탄다고 하며 유족들이 이곳에 시체를 맡긴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 있다가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후에 뼈를 추려 유족들에게 보내거나 바로 사두에게 보내어 켄지스강가로 이동하여 그 재를 뿌리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100세가 넘어 죽은 노인에게는 시체를 이동할 때에 특별한 화려한 장식이 더해진다.

무슬림 공동묘지

무슬림은 윤회를 믿지 않기 때문에 화장문화가 없다. 무슬림은 모두 매장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죽음 이후에는 영이 무덤가에 존재하다가 어느 날이 도래하면 그들의 알라가 있는 천상으로 영이 옮겨진다고 믿는다. 한국가 매우 비슷한 매장문화를 지니고 있으며 비석과 무덤 사이즈는 경제력에 따라 차이가 났으며 매장문화가 정립되지 않아 묘지가 잘 관리되고 정돈되어 있는 편은 아니었다.

(3) 사건사고

일정이 끝난 이후에 택시를 타고 숙소로 갈 때에 택시를 잡느라 매우 고생했다. 택시가 파업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보통 택시왕라가 택시비를 5배 내지는 6배 정도로 터무니 없는 값을 부르기 때문에 흥정을 하여 타기 마련인데 파업으로 인해 오토택시의 수가 매우 적었고 그래서 집으로 가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다. 델리의 경우에는 오토택시가 미터기로 운행하도록 되어있다. 대부분의 택시왕라가 미터기로 가는 것을 거부하고 비싼 값을 매겨 흥정하려고 하고 특히 공동체성이 매우 강한 인도이다보니 한사람의 택시왕라와 흥정하려해도 다른 택시꾼이 떼거지로 몰려와 그 자리에서 담합을 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미터기로 운행하려 하지 않을 시 경찰에 신고하면 그 자리에서 택시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힌도로 의사소통만 가능하다면 이 점을 명확하게 하여 미터기로 가는 것이 제일 싸고 편한 방법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미터기로 가는 것으로 흥정해보고 적당한 가격에 흥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1월 6일

(1) 일정

08시20분 아침식사
08시50분 말씀묵상
11시 40분 VJ집 도착
14시 45분 인도성서공회
15시 25분 FREE CHURCH
15시 45분 잔타로만타로(천문대)
16시 30분 서점
18시 30분 선생님댁에서 저녁식사&예배
22시 20분 말씀통독
22시 40분 전략회의
23시10분 샤밍인터뷰

전략회의

- 1) 내일 일정 7시 45분 식사
- 2) 침낭을 사자
- 3) 후원금관련
- 4) 보고서 개요

(2) 리서치 및 사역 내용

VJ집(AJ 목사님 댁)

아제이 맞세이로 이름을 바꾸셨다고 함. 맞세이가 그리스도란 뜻. 온가족이 믿음. 힌두사역 담당목사님. 항상 공부하고 신실한 목사님. 힌두 사역자가 4명. 새로운 교회개척한 목사님 (교인이 15명쯤) 이 오셔서 인사함.

여성에 대해 김바울 목사님 인터뷰. 힌두사회에서 여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한다. 여자가 태어나면 집안의 저주라고 생각한다. 여자아이를 구합시다 라는 표지가 병원마다 있을 정도이다. 여아 출생으로 낙태율이 높고 여자가 부족하니 여성관련 성범죄율도 많고 결혼 못하는 남자도 많다. 성비율이 1000 대 840으로 세계 최고로 성비율이 맞지 않는다고 한다. 아무리 가난해도 지참금(다우리)으로 한국돈 500만원 정도를 여자측에서 시집으로 가져가야 한다. 텔리에서만 한해에 새신부 몇백명이 죽어나간다. 그 이유는 다우리를 받아 재산 한 몫을 챙기려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신부가 음식을 하다 죽은 것처럼 부엌에서 시체를 태우는 사례가 가장 많다. 또한 사띠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남편이 죽으면 여자도 함께 따라 죽는 제도를 일컫는다. 여성이 죽음을 선택하지 않아도 친정에서 죽으라고 강요하는 분위기가 된다. 왜냐하면 남편을 따라 죽으면 사띠라는 신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신이 되면 그 집은 사원이 되어 돈도 받고 할 수 있기에 친정에서 죽으라고 눈치를 준다고 한다.. 따라 죽지 않으면 마을에서 추방되는 것은 물론 다른 마을에도 들어갈 수 없고 흰옷을 입고 평생 혼자 살아야 한다. 현재 크리슈나라는 템플에 과부가 2000여명 정도 살고 있다. 일전에 kbs에서 찍어간적이 있는데 과부의 구성을 보면 브라만이 5%, 하리잔이 15-20%정도이다.

사회적 지위로 재조정되면서 카스트는 많이 무너졌으나 시골은 여전히 존재하는 실정이다. 인도 수상, 텔리 주수상도 여성이나 매우 극소수의 경우에 불과하다. 버스 안에 남자 여자가 구별되어 있는 것은 제도일 뿐이고 사상은 여전히 여자를 구원이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변해도 다우리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셨다. 지식인계층이 들어와도 기득권세력이 되어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어려울 것이다. 간디도 그렇게 노력했으나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신이 되어버림.

인도성서공회(Bible House)

책이 많고 짠 편이었다. 텔리 시내에 위치한 것이 신기했다. 합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

Free church

1920년대에 지어진 교회이다. 매우 깨끗하고 넓었다.

독립교단으로서 개신교라 하지만 카톨릭적인 요소가 섞여 있다. 건물이 엄숙한 성당분위기이다. 피아노 성가대석, 오르간 등 타교회에서 보지 못했던 시설 및 장비가 좋은

편이었다.

성도들도 많이 모임. 도심 한복판에 위치. 영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천문대

자타르마타르.

고대천문대. 입장료: 외국인에게 100루피 받아서 들어갈 수 없었다.

지하상가

냄새나고 후덥지근하고 한국의 동대문.

골라골라 많고 호객행위가 활발. 물건다양.

멀티숍형태.

선교사님댁 앞 템플

시바신을 섬기는 템플. 인간이었으나 신이 된 할아버지를 섬기는 신당도 있었음.

선생님댁

예배드림.

1월 7일

(1) 일정

08 00 기상

08 30 아침식사

09시 목상

10시 센터청소

11시 10분 로투스 템플

12시 40분 이스콘 템플

2시 점심식사

3시 30분 센터도착, 짐정리

5시 스테이션 출발

6시 25분 바라나시로 출발

(2) 리서치 및 사역 내용

로투스 템플

연꽃모양의 템플이다. 하얀 대리석 타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페라하우스와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굉장히 웅장한 돔 형식이며 매우 으리으리하다. 바하이교에서 세운 템플인데 바하이교란 중동에서 1800년대에 시작된 종교로서 중동지역의 신도들이 oil 을 팔아 재정적으로 매우 여유가 있는 종교이다. 전세계의 통합을 강조하며 좋은 사상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포용력이 크다. 바하올라 압둘 바하 가 교주의 이름이다. 그가 1950년에 죽은 이후에 이단으로 치부되어 그를 따르던 사람들 중 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교하면서 그 세력을 더욱 확장하였다. 우간다, 시드니, 이스라엘 갈멜산, 뉴욕, 텔리에 템플이 있으며 한국에도 본부가 있다. 내부에서는 촬영을 금하고 있고 목상과 명상을 통해 신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믿는다. 헬퍼들이 모두 외국인이라는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스콘 템플

시바의 아바타인 크리슈나를 섬기는 템플이다. 기따에 의하면 아르준이 최초의 사람이며 아르준이 전쟁에 나가기 전날에 자신을 섬길 것과 카스트에 따라 할 일들을 아르준에게 명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 명한 것들을 기록한 것이 기따이며 기독교로 치면 성경처럼 권위를 지닌 책이다. 크리슈나는 유부녀인 라다와 유희적이며 쾌락적인 사랑을 하였다. 불륜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내에서 매우 숭고한 사랑으로 추앙받고 있으며 인도사람들이 매우 좋아한다. 이스콘 템플은 세계에 퍼져있음. 크리슈나의 상징인 뱀을 동시에 숭상하기도 한다.

크리슈나 체험관에서는 아르준과 크리슈나의 대화를 보여주기도 하고 크리슈나가 사람들에게 birth와 death를 결정한다는 것을 영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는 체험관등 여러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모든 신이 그러하듯 크리슈나에게 순종하면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믿는다. 체험관의 시설 장비가 매우 훌륭했고 이스콘 사원 위에도 크리슈나에게 기도하며 꽃모양의 지대를 밟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 발자국을 따라 땅밟기를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장소를 덮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였다.

인도의 교통문화

인도에는 사이드 미러가 없다. 경적소리가 비키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가고 있다 라는 뜻으로 울려댄다. 교통문화가 거의 최악의 수준이다. 사람이든 차든 부딪혀도 죽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의 사고이다. 만약 사람이 치어 죽는다면 사람들이 몰려들어 배상이며 사건처리하며 할 새도 없이 운전자를 그자리에서 집단구타하여 때려 죽인다. 선교사님도 사고 당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선생님은 장애인 3급이시다. 차와 차끼리 부딪혀도 배상책임이

거의 없다. 오토릭샤와 벤츠가 한 거리에서 다니는 만큼 배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토릭샤같은 경우 버스의 매연을 마시면서 다닌다. 텔리의 오토릭샤는 미터기가 있다. 미터기로 주행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릅샤를 압수하게 되어있다. 아직 타지역에는 수용되지 않은 제도이다. 사람들은 횡단보도 없이 그냥 건너다닌다. 그저 안다치기만 한다면 어떻게 다녀도 상관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호체계도 거의 없을 정도이다. 역주행도 가능할 정도이니 더 이상 할 말은 없을 것 같다. 버스 내부는 위험하지 않으나 타고 내릴 때가 매우 위험하다. 버스가 좀처럼 서지를 않고 서행할 때 사람들이 달려들어 타거나 뛰어내리기 때문이다. Conductor seat 가 있어 사람들에게 행선지를 소리지르고 Fee collector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버스값을 걷는다. 여자 남자의 좌석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아직도 인도내에 여자와 남자의 차별과 근대화되지 않은 의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장애인석이 맨 앞자리에 따로 구별되어 있으나 버스에 올라탈 수 있으련지는 미지수이다. 구간별로 1루피, 2, 5, 10, 20루피가 있다.

스테이션 & 기차

침낭 살 때 처음에 600을 요구하였으나 실제로는 150에 샀음. 보통 인도에서는 일반 가격에 6배를 부른다고 생각하면 된다. 짐만 보이면 짐 들어주겠다고 오는 사람이 많다. 선의가 아니라 나중에 무조건 돈 달라고 빼기니 이런 자들의 도움은 안받는 것이 상책이다. 기차칸이 정비가 되어있지 않아서 좌석을 찾을 수가 없었다. 나중에 알고보니 기차칸이 차체에 분필로 흐리게 적혀있을 정도로 서비스 상태는 좋지 않다. 슬리퍼칸은 잘만했으나 위생상태는 좋지 않다. 짜이와 커피를 파는 사람들이 거의 5분마다 한번씩 종일 돌아다닌다. 화장실의 아래가 뚫려있어 오물이 바로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있는 구조이며 그래서 정차시에는 대소변을 피하는 것이 좋다. 기차가 전체적으로 위생적이지 않다. 좌석 없이 세면대 앞에서 자리를 잡고 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다. 인도사람들은 기차 여행을 하며 짐을 엄청 가지고 다닌다. 창문이 잘 닫기지 않아 매우 추웠으며 스위치가 고장 나 불이 꺼지지 않았다.

(3) 평가 및 반성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 했는데 인도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매우 약하다는 생각을 했다. 자신보다 강하고 훌륭한 것은 모두 다 경배한다. 경배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전부다 신으로 만들어 버린다. 특별히 마더 테레사를 시바의 아바타인 칼리의 부인으로 만들고 간디 역시 신으로 만들어 숭상하는 것은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이 원한 삶과 의도했던 영향력은 묻혀버린 채 신으로 신격화되어 의도하지 않은 영향력을 행세하게 되었음이 안타깝다.

일본 같은 생각이 든다. 일본이 신이 많은 이유가 섬나라이기 때문에 삶의 위협이 항상 존재하였기 때문에 신을 많이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데 인도는 왜일까.

무슬림 같은 경우에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알라가 하나님임을 전파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용이한데 힌두는 모든 것을 다 신으로 흡수해버리는 등 수용성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파가 더 어려운 것 같다.

인도인들은 자신들의 모국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인도는 위대하다는 말을 이곳저곳에서도 볼 수 있고 대지진 사건 때에도 유니세프의 도움 전혀 받지 않겠다고 하고 오히려 인도네시아를 돕겠다고 할 정도이다.

결국 잘못된 정보로 인해 한껏 여름옷을 챙겨가 팀원들의 건강이 모두 급속도로 나빠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인도는 더운 것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그 이유로 인해 인도 전역 어디를 가도 난방 시설이 없기 때문에 겨울의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북인도의 겨울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파카를 껴입어야만 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켈커타와 썸바푸르 등지는 다름. 윗도시라 텔리만 유난히 추웠다.) 물론 침낭도 필요하다.

1월 8일

(1) 일정

07시 바라나시도착 & Billaspur행 기차 부킹
10시 30분 시타 게스트하우스 도착 및 짐정리, 빨래
13시 30분 점심식사 및 휴식
18시 30분 저녁식사 및 한국에 전화
20시 50분 말씀묵상
22시 40분 전략회의

전략회의

- 1) 교회를 찾자. 한인교회로 갔으면 좋겠다.
- 2) 선교사님께 연락드려 교회를 찾자.
- 3) 지도, 랜턴 사야함.
- 4) 켈커타 도착 20일도착으로 일정변경. 썸바푸르 2박3일로.

(2) 리서치 및 사역 내용

도착한 날이므로 리서치 내용은 없음.

(3) 평가 및 반성

바나라시 도착해서

텔리와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텔리보다 매우 작은 도시이며 근대화 되지 못한 느낌이다. 기차표 예약하러 갔을 때 전산시스템이 거의 무용지물 수준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숙소를 찾아 헤맬 때 브로커가 있었고 그를 이용했으나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가지 않으니 매우 화를 내고 무턱대고 돈을 달라고 빼기는 사태가 벌어졌다. 릅샤 두개를 움직여준 대가로 미불 60달러를 부르더니 200루피를 부르고 결국 150루피를 냈다. 기어이 한국에서 유명한 시타 게스트하우스를 찾았다. 위대한 정보왕국 코리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강가가 내려다보이는 좋은 숙소를 잘 찾았으나 한국에서부터 더 많은 정보를 가져왔다면 좋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었다. 9박 10일 장기투숙을 조건으로 남자 더블룸은 200루피에 계약하고 여자 네명이 모두 들어간 디럭스룸은 700루피를 550루피로 깎아 계약하였다. 숙소는 갠지스강이 내려다보이며 모든 팀원이 만족스러워했다. 도착하자마자 시체 두구가 이동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동 중이었는데 시체의 머리가 드러나서 움직였음. 들것에 시체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하얀 꽃을 뿌리고 구호 같은 것을 외치며 길을 비키게 하였다. 매우 빨리 걸어가며 슬픈 분위기는 아니었다. 멀리서 보이는 갠지스강이 생각보다 예쁜 느낌이다. 어딜가서 음식을 시키든 항상 늦게 나온다. 기본이 한시간이다.

(4) 사건사고

영필형제, 요섭형제, 정하자매, 미애자매 순서로 감기에 걸림.
정하자매가 치통이 있음.

1월 9일

(1) 일정

08시 30분 아침식사
09시 00 교회로 찾아 출발
16시 20분 전략회의
20시 30분 예배

전략회의

- 조사내용: 화장하는 방법, 수장법, 그 대상. 카스트의 차이. 빈부의 차이에 따른 화장법 (화장하는데 드는 비용). 화장터까지 오는 방법들 등과 그 의미. 죽음에 대한 관념과 그 의미. 인식 체계. 참여자. 담당하는 계층이 있는가. 절차에 대한 개방도. 죽은 자에 대한 제례여부.
- 관찰,미디어: 수장하는 방법, 화장법, 운송, 참여자,
- 인터뷰: 죽음에 대한 관념, 화장의 의미. 참여자.

일정 상의.

1월 10일 월요일

오전중에 황금사원. 마니까르니까 가트로 이동.

1월 11일 화요일

힌두대학.

(2) 리서치 및 사역 내용

문헌조사

- 바라나시의 뜻은 신적 자유의 땅이라고 한다. 영적 빛으로 충분한 도시라는 뜻으로 카쉬라고 부른다. 4000년이 넘는 역사의 도시이며 영국 식민통치 후로 본래의 힌두성지의 위치를 되찾음. 2대신인 비슈누와 쉬바의 거처이며 쉬바의 아내인 빠르와띠는 히말라야의 딸로 묘사된다. 히말라야가 산 성지이며 갠지스가 강 성지임. 힌두신의 거처이며 하늘의 강이라고 묘사된다. 강은 힌두인들에게 생명력과 정화력을 가진다는 의미를 가진다. 보다는 윤회의 삶을 위한 곳이며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천상(신들의 거처에 가거나 해탈에 이른다)고 믿는다. 갠지스강은 변명과 구원을 제공하는 마더 강가로 불린다. 힌두인들은 죽은후 화장한 이후에라도 강가에 뿌려지기를 원함. 그러므로 윤회로부터 해탈하여 최대의 행복을 맞이할 수 있다고 믿는다.

바라나시는 시바신의 영원한 도시이다. 강가에서 삶이 끝나며 새로운 삶으로 창조되기 때문이다. 쉬바가 창조를 위해 만든 도시. (죽음=창조)

순례장소=떠르타. 떠르는 건너다라는 뜻. 여울, 통로, 목욕장소, 강으로 가는 계단 강을 건너는 것이 천상과 지상을 연결해준다고 생각함. 끊임없는 생과 사의 흐름, 윤회를 상징. 그 믿음은 바라나시를 죽음의 도시로 연결하여 의미를 가져왔다. 철학, 종교, 학문, 예술의 중심지. 84개의 가트가 있음.

버닝가트는 북쪽/남쪽. 북쪽의 나무가 재료이며 남쪽은 전기로 화장함.

주변에는 유가족도 많고 촬영은 금지되어 있음.

바라나시는 우주창생의 지점이다. 무굴시대에는 베나레스라고 불리웠고 영국식민통치때도 베나레스로 불렸다. 1956년에 바라나시라고 개명하였다. 그들이 부여한 신성성 때문에

관광지가 되었다.

이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링가(위에는 남자성기 아래는 여자성기)가 곳곳에 있다. 링가는 링감이라고도 불리며 시바의 몸이 9개의 조각으로 분리되어 땅에 떨어질때에 시바의 성기가 떨어져서 만들어진 모양이라고 한다.

바라나시만 직접적으로 해탈을 부여한다면 나머지 여섯 성지는 바라나시에서 재생되도록 하는 축복을 통해 간접적으로 해탈을 부여한다고 믿는다. 다른 형태의 구원은 다른 곳에서도 가능하나 우위의 구원은 바라나시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믿음이 도시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강가는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데 남은 죽음을 상징, 북은 창조를 상징. 동쪽에는 주거지가 없는 기이한 구조. 화장은 일종의 희생제의이다. 우주의 해체와 재창조와 동일시. 한 사람을 소우주로 생각하는 그들의 세계관에서 화장은 재생을 위한 행위이고 다시 태어난다고 믿는것이다.

(3) 평가 및 반성

교회를 찾지 못해 11시 예배를 위해 10시경 무작정 싸이클 택시를 타고 실험을 시도했으나 교회가 굳게 닫혀있었고 예배는 5시란다.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교회가 11시로 대부분 통일되어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교회를 찾지 못했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주일이라 관공서도 문을 닫았기에 구할 수 있는 출처도 없었으나 도착한 첫날엔 서점도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고 관공서 뿐 아니라 모든 것들의 위치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딪히게 되는데 이럴 때에 한국에서 가져온 지도가 매우 유용할 것이라 판단된다. 우리 팀의 경우에는 한국인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다가 만난 한국사람들에게 가이드북을 빌려 지도를 사진으로 찍어 지도의 대략을 파악하는 방법을 썼다.

(4) 사건사고

교회를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다. 결국 숙소로 돌아와 간사님의 말씀으로 팀원들과 함께 긴 예배를 드렸다. 말씀: 시편 18편

1월 10일

(1) 일정

09시 15분 아침식사

10시 40분 강가로 나감.

라나마할 가트. 다르방가 가트, 문시가트, 메인가트, 라리타가트, 몸바티야 가트(버닝가트)

15시 00 숙소에 도착
17시 30 메인가트 ceremony
20시 00 저녁식사
22시 40분 예배

(2) 리서치 및 사역 내용

가트 주변

가트 주변에 흰 가루같은 것을 뿌렸음.
링가가 매우 많으며 신상이 곳곳에 있음.
칼리. 크리슈나. 비슈누.
주황색이 매우 많음. 신도 주황색. 사두의 옷도 주황색.
상여도 주황색. 거지가 많음. 의욕없는 소와 개.
아픈 사람들이 많음. 여자 목욕하는 사람도 있었음.
곳곳에 요가 트레이닝 센터가 많았음.

황금사원

검문이 심함. 850KG의 금으로 사원탑이 덮여있음. 신상도 금이었음. 골든템플에는 힌두만 들어갈 수 있음. 관광객이나 무슬림등은 출입할 수 없고 주변에서 볼 수만 있음. 그 안에 신령한 나무들을 심고 있었음. 나무 주변에 링가가 나열되어 있었음. (링가-쉬바가 아홉등분이 되어 떨어진 성기.)
힌두사원 바로 옆에 오렌지보라는 왕이 만든 모스크 사원이 있음. 무슬림들이 황금사원을 부수고 모스크를 지으려고 한다는 말. 최근에 힌두교사람들과 무슬림간에 매우 민감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그래서 매우 많은 군인과 경찰이 배치되어있다.

마르까르니까 가트 (버닝가트)

나무로 만든 판 위에 하얀천으로 싼 시체를 옮겨놓고 나무와 짚을 덮는다. 쾡지머리를 한 유가족(남자 및 아들)이 직접 짚을 가지고 시체를 빙빙 돌거나 시체머리위에서 짚을 몇번 돌린 후에 불을 지핀다. 이후 유가족은 떨어져서 지켜보고 돕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불을 지핀다. 유가족은 하얀색 천으로 몸을 두름. 쾡지머리를 함. 여자는 화장터에 올 수 없음. 시체가 오면 갠지스강으로 상여를 가져가서 통째로 물에 담그고 나무바구니에 물을 담아 물로 계속 덮는다. 이후에 화장.
시체에 따라 하얀천으로 쌓인 시체가 있었고 그 위에 붉은색 염료를 뿌리고 꽃목걸이를 두른 시체가 있었다. 화장할때에 시체를 덮었던 천은 불을 지피는 곳에 넣어서 같이 태움. 유가족(남자)은 하나씩만 있었음. 황토색 봉지와 검은색같은 봉지와 향나무봉지를 팔고

있음. 시체가 타고 있을때 뿌림. 시체 타기 전에 시체에 종이조각 같은 것도 뿌렸음.
돌가루같은 것도 팔고 있었음. 시체의 머리난 서쪽 방향으로 놓았음. 우는 사람은 없다.
어머니가 죽었을 경우 콩지머리는 하지 않고 아버지가 죽었을 경우에만 콩지머리를 함.
가난한 사람일 경우 강가에 그냥 버림. 떠올랐을 경우 개들이 시체를 먹기도 함.
향나무 봉지는 1KG에 50루피, 나무 값은 40KG에 130루피. 한사람 태울때 200KG이
필요하다고 함.
상여꾼들이 시체를 이동시 소리치는 것은 ‘라마신은 알고계신다’ 라는 뜻이라고 함.

저녁 푸자. 마더 강가에게 드리는 제례.

브라만. 마더 강가의 신상을 두고 꽃을 둘렀음. 제사상 같은 것이 앞에 있고 촛대에
사람들이 불을 붙여 브라만에게 전달함.
제사도구로는 부채, 헌금함, 빗자루, 음식, 뱀모양(쉬바를 의미) 촛대가 있음
세 명의 제사장 중에 양쪽은 초록띠, 가운데는 빨간띠를 어깨에 걸침
동작이 매우 정교함. 향과 초가 켜진 촛대와 종을 들고 예식을 드림. 예식 전 처음에 고동
및 소라껍질 같은 것을 불어 마더강가를 부름.
진행자가 뒤에서 마이크로 계속 노래부름. 관중석 가운데 징과 북을 치는 사람이 있음.
꽃으로 장식한 꽃등을 강가로 띄워보냄. 매일 6시에 메인가트에 세러모니가 있음. 예식이
끝난이후에 제사음식(설탕덩어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줌. 끝나갈때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며 마더 강가를 찬양함.

(3) 사건사고

요섭형제와 미애자매 정하자매가 심한 코감기로 고생중임. 지속적으로 약을 먹고 있음.

1월 11일

(1) 일정

09시 30분 말씀묵상
10시 30분 기차역으로 출발
12시 30분 숙소도착
14시 30분 마르까르니까 가트 리서치, 아시 가트까지 리서치
18시 00분 저녁식사, 전략회의
21시 00분 예배

(2) 리서치 및 사역 내용

바라나시 정선역

기차표를 바꾸기 위해 오전에 역에 다녀옴.

싸이클 톱샤를 타고 갔는데 생각보다 먼 거리이고 15루피 20루피 정도가 적당.

마르까르니까 가트

브라만이 시체를 태우고 있었다. 시체 위에 쌀 반죽을 올려놓았음. 브라만이 만트라 라고 말하면 영혼이 천상으로 간다고 함. 시체 위에는 황토색 가루가 뿌려져 있고 반죽 같은 것을 짜두었다. 시체를 덮은 나무 위로 염료도 뿌렸음.

시체를 옮기며 소리칠때 '라마신은 아신다' 한사람이 선창하고 나머지는 복창함. 시체를 강가에 내려놓고 시체 머리에 물을 뿌림. 시체 태우기 전에 순서를 기다리면서 향뭍음을 시체 옆에 꽂아 향을 피움. 버닝가트쪽은 12개의 자리가 3시간동안 시체가 타므로 하루에 100구정도가 탄다고 볼 수 있음.

시체가 다 타고 남은 척추뼈를 갠지스 강물에 상주가 던짐. 화장한 자리 옆에 글씨를 쓰고 갠지스 강물을 항아리에 담아 시체 뒤로 던짐

배를 타고 가다가 빨간 천에 땀가루를 담은 것과 밀에 돌을 묶어 갠지스강 중앙까지 배타고 나와 떨어뜨림. 개와 염소가 시체 위에 뿌려놓은 음식들을 먹고 있었음.

머리를 서쪽으로 돌린다는 관찰은 다른 시체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고 보편적인 것이 아닌 것을 알았음.

코브라에 물려죽은 자와 임산부와 어린아이와 과부는 수장시킴.

실라 가트

한적한 곳에서 SHOUT TO THE LORD 위십을 했음.

배를 타고 갠지스강 위에서 보혈로 덮는 기도를 했음.

(3) 평가 및 반성

갠지스는 더럽다. 죽음의 강. 안타까웠다

(4) 사건사고

정하 자매가 치통으로 아침 목상 내지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어제 빨래를 하고 3층 숙소의 창문을 열어두고 리서치를 다녀왔는데 그동안 한국에서 가져온 약봉지와 고추장을 원숭이가 훔쳐갔다. 현지에서 약을 사먹게 되었는데 현지약이 잘 듣는 것 같다.

1월 12일

(1) 일정

08시 00분 기상

08시 40분 아침묵상

10시 30분 힌두대학으로 출발

13시 30분 게스트 하우스로 출발

18시 곤돌레스에서 아이쇼핑

19시 전략회의

22시 10분 말씀통독

22시 35분 전략회의

전략회의

캘커타일정에 관해 상의(쌈바푸르 -> 캘커타 -> 쌈바푸르로 결정)

(2) 리서치 및 사역 내용

베나레스 힌두 대학

교통수단이 필요할 정도로 대학 규모가 매우 크며 전공이 매우 세분화 되어 있다.

여학생들의 대부분은 전통의상을 입고 있으며 학교 내에서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다닌다. 학교내에 박물관이 있고 관광명소로도 유명하여 관광객이 많이 들어온다.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있었음. 대학내에 커다란 사원이 있다.

단과대학에 딸린 도서관이 있으며 중앙도서관은 따로 있음. 책들의 분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전산시스템이 없음. 부설 중고등학교가 대학교 내 설립되어 있다.

국립대학이라 나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므로 등록금이 한학기에 2000 루피정도로 매우 싸편이다. 일년코스가 지나야 방학이 있다. 일년에 2 semester 로 이루어진다. Agricultural Depp. 학생들을 만나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대학이 매우 크고 그 둘레가 15km라고 한다. 전체 2만명 재적중이다. 학교안에 템플은 시바신을 섬기는 사원인데 1940년도에 설립되었다. 템플은 인도에서 가장 부자인 '빌라'라는 사람이 세웠다고 한다. 데모했던 이유는 어젯밤 한 학생이 학교 부설 병원에서 죽어서 의사들의 부주의라고 여기는 대학생들이 데모한 것이다.

(3) 평가 및 반성

대학교 학생들은 일반인들과 다르게 영어가 통하기 때문에 매우 좋은 인터뷰 상대이다. 그러나 그들과 인터뷰를 하는데 있어 두가지의 어려운 점이 있다. 한가지는 영어로 대화를 시작할때에 우리보다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그들이 훨씬 영어에 능통하다는 것이고 능통한 반면 인도식 영어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리스닝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알아듣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그들도 한국인에 대해 매우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고 친구가 되려 하기 때문에 필드노트를 꺼내어 인터뷰하기까지 화제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다음 기수에서 이러한 인터뷰를 시도한다면 사전에 인터넷 사이트나 인맥을 통하여 유명한 대학내의 한국인 유학생을 컨택하여 인도해 줄 것을 부탁하거나 또한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여 화제거리를 준비하고 몇일동안 들어가 친구를 사귀어 자연스레 조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1월 13일

(1) 일정

07시 30분 기상
08시 30분 아침묵상
11시 00분 가트팀 출발 / 힌두대학팀 출발
07시 00분 저녁식사
09시 30분 예배

(2) 리서치 및 사역 내용

14일 리서치 내용에 있음

(3) 평가 및 반성

힌두의 역사는 그 기간이 매우 오래되었고 힌두 철학을 하시는 분들조차 그 기원을 알수 없을 만큼 매우 많은 구전과 전설을 가지고 내려온 철학이므로 힌두는 무엇이다 라고 정의내리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인도의 주 세신 (브라만, 비슈누, 시바) 의 아바타가 자그마치 3억 3천만이나 되고 인격적인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를 설정하거나 그들의 특성을 알아내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리서치를 하며 느낀 것은 한국에서부터 사전조사가 매우 절실하다는 것이다.

(4) 사건사고

힌두대학팀 4명이 도서관에서 리서치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국인 한분이 오셔서 어떻게 인도에 오게 되었는지 힌두대학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물어보셨다. 아웃리치인것을 초반에 말하기 거리낌을 느껴 여행객으로 소개하고 한동대학교 팀임을 말씀드렸더니 힌두대학의 유학생이시란다. 한동대학교를 알고 계셨고 김영길 총장님도 아시길래 크리스찬이시구나 하는 직감을 했고 어떤 도시들을 둘러보았냐는 물음에 텔리를 거쳐 바라나시고 왔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텔리의 센터에서 왔느냐고 물으신다. 매우 깜짝 놀라 상황설명을 들으니 텔리의 선생님께서 소개시켜주실 수 있다고 하셨던 바라나시의 곽야곱 선교사님이셨던 것이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분을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선교사님께서는 힌두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계시는 분이셨고 도움 받을 일이 있을 듯 하여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다.

힌두대학팀 4명의 지체중 2명이 바라나시 역에 썸바푸르행 기차표를 캘커타행으로 바꾸기 위해 갔는데 외국인 전용 창구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기다리는데만 두시간이 걸렸다. 서로 연락처도 없고 팀이 세개로 나누어졌기에 5시 30분에 황금사원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역에서 접수한 시간이 5시 30분이 되었다. 접수해서 기차표라도 바꾸고 왔으면 다행이런만 전체팀원의 여권번호를 모른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절당하여 약속장소로 출발했으나 하필 싸이클 틱샤꾼이 마약을 했는지 전혀 목적지와 반대방향으로 한 20분을 갔다가 모른다고 서버려서 돈은 돈대로 지불하고 시간이 2배가 걸려 또다시 황금사원으로 내려왔다. 도착한 시간은 7시. 한시간 반이 오버되어 미리 만나 남아있던 네명의 팀원이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다들 열이 나고 끔끔 앓는 사태가 벌어졌다.

1월 14일

(1) 일정

08시 30분 기상

09시 40분 아침묵상

10시 10분 란자매, 미애자매가 아픔.

이후로 일정 취소. 약사오고 돌봄.

15시 00분 야곱선교사님 댁과 병원으로 출발.

16시 30분 라이프라인 병원에 미애자매 입원.

17시-21시 야곱선생님 인터뷰

21시 00분 야곱선생님댁에서 저녁식사

22시 00분 정하자매가 남아 간호/팀 숙소로 출발

(2) 리서치 및 사역 내용

바라나시는 공식적으로는 100만명이 거주한다고 통계가 나와있으나 약 200만명쯤 산다고 추정된다. 바라나시의 옛 이름은 까시로 빛의 도시라는 뜻이다. 2500년된 고도시이다. 바라나시의 주산업은 관광산업과 비단직조업 디젤제조업이다. 힌두교가 80%, 무슬림이 19.8%, 기독교인은 3000 명이라고 알려져있고 교회는 30개가 있어 한 교회당 100여명을 담당한다고 보고 있다.

운회를 믿는 힌두인들은 현재보다 과거를 더욱 중요시한다. 그것은 자신들의 행위, 곧 까르마가 현 삶을 결정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기원전 3000년부터 발생한 인더스문명이 인도 갠지스강에서 발생했는데 그때부터 살고 있던 드라비다족은 빠스빠띠를 섬기고 있었다. 이것은 짐승을 왕으로 ‘주’로써 삼는 토테미즘과 비슷한 숭배문화인데 기원전 1750년대 천체신, 하늘의 신, 태양의신 등을 섬기던 유목민 아리안족이 침입하면서 농경인 드라비다족과 섞이게 되면서 그들의 신들도 융합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침입에 성공하며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려던 아리안족이 발생시킨 것이 바로 카스트 제도이며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등을 만들었다.

바라나시에 내려져오는 유력한 세 전설을 살펴보면 한가지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아디샤크티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다. 그녀는 홀로 살기 어려워 남자신인 브라만을 만들었다. 브라만에게 아디샤크티는 청혼을 했으나 거절당하고 외로움에 비슈누라는 남자신을 만들었으나 또한번 거절당하였다. 그리고 또 만든 남자신이 시바신인데 시바신이 감히 어머니신과 결혼할 수 없다며 다음생에서 결혼하겠다고 이야기하여 그 여신이 다음생에 두르가로 나타나 결혼하게 되었다는 전설이다. 그렇게 시바신은 두르가와 빠르바띠, 샤크티, 깔리 등 부인만 백여명이 넘는 신이 된다. 두번째 전설은 어느날 신들이 힘겨루기를 한다. 브라만은 나이가 제일 많으므로 제일 힘이 세다고 주장했고 비슈누는 모든 것을 유지하니 단연 최고라고 주장했고 시바는 삼지창 끝이 하늘과 땅에 닿으니 최고라고 주장하였다. 셋이 대결을 했는데 비슈누가 시바보다 더 힘센을 증명하려다가 시바가 자신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는데 브라만이 교활한 방법으로 시바를 속여 화가 난 시바는 삼지창으로 브라만의 목을 쳤는데 브라만의 5개 머리 중 한 개가 시바의 팔뚝에 붙었다. 시바가 어떠한 방법을 써도 브라만의 머리가 팔뚝에서 떨어지지 않다가 진정 참회하고 바라나시에 와 갠지스강에 몸을 닦았더니 브라만의 머리가 떨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또 하나의 전설은 시바는 히말라야의 산에서 수행하던 수행자라는 것이다. 지상의 여신 빠르바띠와 결혼하여 바라나시에서 신혼여행을 보내고 있었는데 마르까르니카라는 빠르바띠의 진주목걸이가 그만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비슈누가 빠르바띠의 진주목걸이를 찾아주게 되었고 시바가 매우 고마워하여 자신의 바라나시 영역에 비슈누의 영역을 선사했다는 스토리이다.

힌두인들에게 화장은 구원의 메시지다. 벗어날 수 없는 윤회로부터 해탈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람을 화장한 후 남으 재가 강가강에 닿는 순간 천상에 올라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천상에는 총 7개의 천상이 있다고 한다. 강가에서 하는 푸자를 아그니호뜨리 라고 이름하는데 해가 뜰때와 해가 질 때 하루에 두번 이루어진다. 총 푸자를 인도하는 사람은 18명인데 만뜨라(베다경을 읽는사람), 우드가따(노래하는 사람), 아디바이유, 브라만(총감독)으로 이루어진다. 사람이 곡식, 제물을 드려 불로 태우면 그 불꽃이 태양광선과 만나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올 수 있다고 믿기에 푸자를 드리게 되며 강가에서 푸자 이후에 찬양하던 의미는 ‘우리의 어머니여 승리하소서’ 라는 뜻이다. 갠지스강에서 한번 목욕하면 7 세대의 죄를 씻김 받는다고 한다. 하늘의 은하수가 쏟아져 땅에 내려온 것이 바로 갠지스라고 힌두인은 믿는다. 바라나시의 힌두인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것이 시바신인데 시바의 삼지창 끝은 창조 이전의 땅을 의미하며 장구를 치며 시바가 춤을 출 때마다 세상이 하나씩 창조되었다고 한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길은 1) 갠마르그: 신의 지식을 깨달을 때, 2) 박띠마르그: 신에게 100% 순종할때 신의 공훈함으로써, 3) 까르마르그: 본래의 목적 그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길(까르마르그)이요 진리(갠마르그)요 생명(박띠마르그)’ 이라고 전하는 것이다.

(3) 평가 및 반성

미애자매가 결국 입원할 정도로 아프게 되었는데 근처의 병원에 대한 정보가 없어 가슴이 아팠다. 이런 일이 있을 줄로 미리 아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친히 도울만한 야곱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고 병원에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릴만한 일이지만 미리 조사지역의 병원정보를 알고 있다면 급하게 아플 때에 조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4) 사건사고

란자매와 미애자매가 어제저녁부터 앓기 시작하여 란자매는 오후에 원기를 회복하였으나 미애자매의 열이 심하게 오르고 설사가 심하여 어제 만나 뵈었던 야곱 선생님의 댁 옆에 병원이 있어 도움을 받기로 하고 병원으로 자매를 옮겼다. 링겔을 맞고 주사를 투여했으나 몸이 금방 회복되지 못하여 미애자매를 결국 입원시켜 경과를 보게 되었다. 정하자매가 간호로 남고 나머지 팀원들은 숙소로 출발하였다.

미애자매 뿐 아니라 팀원 중 네명이 어젯밤부터 설사를 시작하였다. 어젯밤 음식이 잘못 되었다고 추정된다.

1월 15일

(1) 일정

09시 30분 병원으로 지체들 집합
11시 00분 미애자매 퇴원
13시 00분 야곱선교사님 댁에서 점심식사
18시 00분 숙소 도착
20시 00분 말씀묵상
20시 50분 말씀통독
22시 00분 전략회의
22시 15분 예배

전략회의

- 1) 내일 정보 정리하는 시간을 갖자
- 2) 오전에 자체 예배를 드리고 오후 5시에 세인트 토마스 교회로 예배를 가는 것으로 결정
- 3) 월요일-12시 체크아웃하고 비는 시간의 일정상의.

(2) 리서치 및 사역 내용

미애자매 퇴원과 간호로 리서치 내용 없음

(3) 평가 및 반성

미애자매가 입원한 다음날 까지도 야곱 선교사님 댁에서 섬겨주셔서 잘 마무리하고 퇴원할 수 있었다. 예상하지 않았던 만남이라 선교사님 후원금으로 1500루피를 지출하였고 미애자매 병원비와 약값으로 2000루피 가량이 들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비를 넉넉히 잡는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사건사고

캠코더 액정이 나가고 노트북이 켜지지 않기 시작했다. 바라나시에서 리서치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온 팀원들이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급기야는 입원하게 되고 또한 리서치에 가장 중요한 도구인 캠코더가 잘 켜지지 않는 등 게다가 오늘은 노트북마저도 켜지지 않는 공격을 받기에 이르렀다. 더욱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고 악한 영을 대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근원세력이 우리가 빛의 자녀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를 매우 두려워하며 시기하고 있으며 쓰러뜨리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누었다.

1월 16일

(1) 일정

09시 00분 말씀묵상
10시 00분 빨래
13시 00분 점심식사
14시 40분 전략회의
17시 00분 세인트 토마스 교회 도착. 예배.
19시 00분 교회 축복기도
21시 50분 말씀통독
22시 15분 예배

(2) 리서치 및 사역 내용

ST. Tomas Church

가장 한국적인 교회이다. 목사님의 설교는 한국의 목사님들의 설교 스타일과 매우 흡사하다. 많은 형식이 없고 찬양을 부른 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목사님의 말씀이 이어진다. 말씀 후에는 헌금봉헌 시간과 찬양 및 축도로서 순서도 한국 교회와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인도에 와서 경험한 모든 현지교회가 그러했지만 설교 말씀이 대략 한시간 반정도로 매우 긴 편이며, 살펴보는 주제말씀도 구약과 신약에서 뽑으시고 강해하시는 말씀구절이 한국에 비해 매우 많다.

담임목사님 설교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8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21절

요한복음 1장 29절~37절

시편 53장 2절,3절

야고보서 1장 12절~15절

(3) 평가 및 반성

현지교회에서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사실 알아만 있는 것은 리서치 이상의 의미가 없다. 주일이므로 교회는 가지만 실제로 언어의 막힘으로 인해 메시지가 없으므로 형식적인 예배는 드렸다 할지라도 팀원끼리 예배 드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사건사고

정하자매가 14일 이후로 계속 설사함. 저녁부터 복통을 호소함.

1월 17일

(1) 일정

09시 05분 말씀묵상
11시 00분 체크아웃
11시 10분 땅밟기 및 갠지스 축복기도(라나가트-버닝가트, East 가트-West 가트)
13시 00분 점심식사
14시 00분 땅밟기(아시가트-라나가트)
16시 00분 쇼핑
18시 저녁식사
19시 스테이션 도착 (바라나시->캘커타)
21시 40분 기차로 출발, 예배.

(2) 리서치 및 사역 내용

땅밟기 및 중보

마지막 날이라 오전중에 체크아웃 했으며 숙소에 가방을 맡겨둔 채 마지막으로 온 가트를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 땅밟기를 했다. 라나가트에서 마르까르니까 가트까지 올라가며 땅밟기를 했으며 마르까르니까 가트에서 보트를 타고 갠지스강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 기도를 했으며 서쪽 강변으로 가서 Shout to the Lord 와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위십을 하였고 보트로 아시가트로 내려와 점심식사 이후에 아시가트에서 라나가트로 올라가며 내내 찬양과 중보로 땅밟기를 하며 바라나시에서의 일정을 마쳤다.

쇼핑

옷가게를 돌아다니며 팀원과 함께 맞추어 입을 인도풍 옷을 상하벌로 맞추었다. 가격을 부풀려 말하는 경향이 매우 높으나 흥정하여 상하벌 12피스와 목도리 4피스 모두해서 1200 루피 정도를 지출하였다.

(3) 평가 및 반성

땅밟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간단한 것이 아니라 매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갓은 공격 가운데서 악한 영을 대적해야 하며 악한 세력의 정확한 이름을 불러 쫓아야한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역시 그 도시의 역사적인 맥락과 영적인 관점을 가지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광야곱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마르까르니까 가트 북쪽으로는 비슈누의 영역이고 남쪽으로는 시바신의 영역이기에 정확한 이름을 불러 대적하였다. 인도내에 또는 특정 지역안에 어떠한 어둠의 권세가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지 파악한 이후에 효과적인 중보기도는 이루어 질 수 있다. 탄탄한 사전조사와 필드에서의 영적인 통찰력이 요구된다.

(4) 사건사고

땅밟기를 실시한 이후에 정하자매가 오후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여 복통과 메스꺼움 오한등을 호소하며 끄끙 앓기 시작하여 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숙소 로비에 내내 누워있었다. 열이 많고 몸을 가누기 어려워 캘커타로 이동하는 데 쉽지 않았다.

1월 18일

(1) 일정

13시 캘커타 도착
14시 30분 이경호 선교사님 댁 도착
15시 00분 점심식사
19시 30분 저녁식사
20시 30분 말씀묵상
21시 25분 말씀통독
22시 전략회의, 예배

전략회의

- 1) 사랑해요 미션
- 2) 씬바푸르행 기차표 사러가기 (목 저녁 9시, 주일저녁 5시)
- 3) 증보자 선물 사러 가기

(2) 리서치 및 사역 내용

도착하자마자 빨래하고 샤워하고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쉬.

(3) 평가 및 반성

바라나시에서 왜 씬바푸르로 바로 보내지 않으시고 캘커타로 오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저녁 정하자매 아팠던 것과 모든 팀원이 건강이 위험신호에 닥쳤음을 볼 때에 우리를 위해 험터를 마련해주신 하나님께 매우 감사하다. 한국에서 계획했던 일정을 고집하기 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탁월한 인도하심을 믿고 움직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1월 19일

(1) 일정

09시 00분 기상, 세면, 아침식사
10시 45분 아침목상
12시 00분 시티센터
13시 30분 점심식사, 한국에 전화
15시 뉴마켓
19시 저녁식사
20시 예배 (Potter's House 전체예배)
22시 30분 말씀목상
23시 전략회의

전략회의

- 1) 일정상의
- 2) 후원금 문제 관련 상의

(2) 리서치 및 사역 내용

리서치 없음.

(3) 평가 및 반성

캘커타에 들어온 이유는 그간의 리서치를 정리하고 지친 영육을 쉬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리서치를 하지 않았다. 바라나시에서 많은 영적 싸움이 있었으므로 팀원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썸바푸르 사역을 앞두고 있었으므로 체력을 충전하는 시간이 되었다. 중보기도자 선물을 사러 시내에 나갔다 오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1월 20일

(1) 일정

09시 기상
10시 아침식사
12시 말씀목상
12시 40분 말씀통독

12시 55분 전략회의
14시 30분 빅토리아 메모리얼 도착
18시 30분 저녁식사
19시 30분 스테이션 출발 (캘커타->쌈바푸르)
21시 25분 쌈바푸르 기차 출발, 예배.

(2) 리서치 및 사역 내용

빅토리아 메모리얼

1901년 죽은 영국의 여왕 빅토리아를 기념하여 건축하였다. 타즈마할에 버금가는 규모와 아름다움으로 지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건축했다고 하나 세간에서는 타즈마할을 더욱 높이 평가한다고 한다. 내부의 거대한 하얀 대리석 박물관은 대영제국의 기억할 만한 여러 가지 사건들과 수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에 매일 문을 열며 여름에는 오후 4시 30분까지 개장한다. 외국인의 경우 입장료는 150 루피이다. 비싼 입장료로 본 팀은 궁 안으로 입장하지 않았다.

(3) 평가 및 반성

캘커타를 둘러본 후 짐을 간단히 싸서 저녁기차로 쌈바푸르로 이동하였다. 캘커타 Potter's House 의 이경호 선교사님께서서는 다음날 한국으로 출국하실 예정이라 후원금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나왔다.

(4) 사건사고

이경호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인도 선교사님이 있는 쌈바푸르로 이동할 때에 한국인 선교사님께 미리 후원금 관련하여 말씀 드리고 의견을 여쭙고 난 후에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현지 사역자의 경우 드물게는 외국 선교사를 재정수단으로 여기고 사역에 충실하지 않을 수도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역자가 그러하지 않지만 한국과 필드의 환율 차이를 감안할 때에도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재정후원에 관한 부분은 한국 선교사님과 의논하여 적절한 수준을 책정하여 후원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팀 내에서도 많은 의논이 있었고 이 방법을 택하였다.

1월 21일

(1) 일정

09시 30분 쌤바푸르 도착
10시 00분 아침 식사
11시 00분 라주 동생의 집
12시 15분 마하나디 강 & 자와하르 우안 히라쿠드 공원
13시 00분 점심식사
14시 00분 쌤바푸르 대학
16시 00분 히라쿠드 댐
17시 00분 현지 가정 방문
18시 00분 저녁식사
20시 00분 라주 동생 결혼식 리셉션 초대
21시 30분 차문다 은혜의 집 도착
23시 00분 전략회의, 예배

(2) 리서치 및 사역 내용

리서치 없음. 정글속 차문다 은혜의 집 도착.

1월 22일

(1) 일정

08시 00분 기상
09시 00분 아침식사
10시 00분 묵상
11시 00분 예배당 데코레이션 및 풍선아트
13시 30분 점심식사
14시 30분 찬양 가르치기 & 게임
19시 30분 저녁식사
21시 00분 예배

(2) 리서치 및 사역 내용

찬양 및 율동 가르치기

- 1) Deep Deep
- 2)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 3) 앓 뜨거워
- 4) 호산나
- 5) Rightousness, Peace, Joy in the Holy Ghost

정하자매가 키보드를 치고 영필형제가 기타를 치고 나머지 팀원들이 모두 율동으로 섬겼다. 화이트보드에 가사를 적고 뜻 하나하나를 설명한 후 율동 시범을 보인 후 율동을 가르쳤다. 처음에 매우 쑥스러워하나 개인적 율동이 아닌 함께하는 율동일 때 반응이 매우 좋았으며 동네 부족 어른들이 다 와서 구경할 만큼 분위기가 좋았다. 아이들의 교육수준이 도시에서 처럼 영어실력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하여 영어에서 뱅갈리로 번역하는 과정이 뒤따랐다. 사역 시작 전에 팀을 환영하는 그들만의 순서가 있으며 그들의 찬양과 손을 씻겨주는 의식과 꽃을 꺾어 증정하는 순서들이 있었다.

게임 및 운동회

- 1) 2인 3각 계주
- 2) 장애물 게임 (코끼리 코 10회, 풍선터뜨리기, 줄넘기)
- 3) 실꼬기 게임
- 4) 꼬리잡기 게임
- 5) 닭싸움
- 6) 짝피구 게임

총 여섯가지의 게임을 진행하였으며 차문다의 아이들 전체를 그린팀과 블루팀으로 나누어 팀원 모두 하나의 팀에 속하도록 하여 운동회의 진행을 도왔다. 모든 게임은 시범을 보인 이후에 진행하였고 진행 중간중간 배웠던 율동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반응은 매우 좋았으며 어른이며 아이들이며 모두 행복하고 자유롭게 뛰노는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친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적절히 좋은 날씨와 환경으로 인도하여주셨다.

예배

예배는 그들만의 찬송곡으로 찬양함으로 시작된다. 다른 현지교회들이 그렇듯 타블라라고 불리는 북이 한가지의 악기이며 찬양은 매우 간편이며 보통 30여분을 계속 찬양한다. 찬양 이후 은혜의 집을 섬기는 라주와 수니타의 말씀이 선포되고 특송이나 워십댄스가 있기도 하고 통성기도 시간을 갖는다. 어려운 가정에서 모인만큼 헌금시간은 없다. 그들의 예배

순서는 우리와 똑같지만 그들의 차문다 은혜의 집에서 드리는 아이들의 예배는 매우 경건하고 거룩하면서도 뜨겁다. 그들의 찬양소리를 들을 때 우상신에게 무릎꿇지 아니한 칠천을 인도에 남겨두셨구나 라는 감동을 받았다

(3) 평가 및 반성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미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기대하고 기뻐하는 만큼 더욱 탄탄한 준비물로 섬겼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한국에서 팀이 온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준비하여 가는 만큼 그들도 준비를 해준다. 환영파티나 송별파티, 또 예배 때 가르쳐줄 인도찬양 및 위십 댄스 등 우리만큼 그들도 준비하여 사역의 날들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탄탄한 준비로 섬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1월 23일

(1) 일정

08시 00분 기상
09시 00분 아침식사
10시 00분 전체 예배 (차문다 은혜의 집 예배)
12시 00분 풍선아트
12시 45분 말씀묵상
13시 30분 점심식사
14시 00분 운동장에서 전체 찬양 및 댄스, 송별식
15시 30분 역으로 출발
17시 00분 썸바푸르에서 캘커타행 기차 출발
18시 00분 말씀통독

(2) 리서치 및 사역 내용

리서치 내용 없음.

차문다 은혜의 집을 위한 기도제목

- 1)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도록
- 2) 새 프로젝트들을 시작하는데 인간의 지혜로 사역을 제한하지 않도록
- 3) 사람을 두려워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 4) 존슨의 수술이 잘 되고 아픈 지체가 낫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 5) 45명의 아이들이 지역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 6) 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 7) 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두 채워주시도록

(3) 평가 및 반성

기차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라주와 수니타가 싸 주셨다. 이들이 한국에서 온 팀을 섬길 때에는 매 순간 지극정성이다. 받은 배려가 너무 커서 모든 팀원들이 감동하였다.

1월 24일

(1) 일정

- 06시 30분 하우라 역 (캘커타) 도착
- 08시 00분 센터 도착
- 08시 30분 아침식사
- 09시 00분 빨래 및 세면
- 11시 45분 말씀묵상
- 12시 15분 말씀통독
- 13시 00분 점심식사
- 14시 30분 시티센터 & 뉴마켓
- 20시 00분 센터도착 & 저녁식사
- 21시 15분 예배 & 디렉터 선출

(2) 리서치 및 사역 내용

리서치 내용 없음

(3) 평가 및 반성

디렉터 선출이 있었다. 훈련생 세 명 중에 두 명이 기도를 하며 디렉터 직분에 자원하였다. 두 명이 자원했기에 하나님의 음성듣기를 실시하였고 요셉형제가 디렉터가 아닌 섬김이로서 음성을 받았고 확인을 위해 기도 후 제비뽑기를 실시하였다. 디렉터 제비와 섬김이 제비, 공제비 세장을 놓고 제비를 뽑았고 결과는 공제비는 아무에게도 가지 않고 미애자매가 디렉터, 요셉형제가 섬김이 제비를 뽑게 되었다.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고 기장으로 수고했던 영필형제와 섬김이로 수고하였던 전 디렉터도란자매와 섬김이 정하자매 간사님 수진자매 등 팀원 모두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4) 사건사고

이경호 선교사님의 컴팩 노트북 아답터로 연결한 결과 노트북을 충전 할 수 있었다.

1월 25일

(1) 일정

08시 00분 기상 및 아침식사
09시 00분 말씀묵상
10시 30분 마더테레사 하우스 & 깔리 신전
13시 00분 파크호텔에서 뷔페 & 이상기목사님 미팅
15시 00분 한국에 전화
16시 30분 센터에 도착
17시 00분 저녁식사 및 짐정리
19시 00분 캘커타 공항 출발
21시 30분 비행기 이륙

(2) 리서치 및 사역 내용

마더 테레사 하우스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 하우스는 깔리 신전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깔리 신전에 찾아오는 힌두 신도용 숙수에 빈민과 병자들의 위한 피난처 니르말 흐리다이를 만든 것이다. 캘커타에 마더 테레사 하우스는 두곳이 있으나 팀원이 방문한 곳은 죽기 직전의 사람들을 치료하고 간호하는 곳으로 죽음의 집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바로 옆 깔리가트의 사제가 마더 테레사 하우스의 수녀들을 쫓아내려 노력했으나 결국 그가 콜레라에 걸려 사람들로 부터 외면 당했을때에 마더 테레사와 사랑의 선교회 수녀들이 그를 맞았던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 일화를 증명이라도 하듯 전혀 어울리지 않아보이는 깔리 신전 옆에 마더 테레사 하우스는 위치하고 있다. 그들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름 부으시기를 위해 기도하였다.

깔리 신전

수많은 신화가 있지만 깔리는 시바신의 부인으로 알려져 있다. 파괴의 신이며 깔리를 숭배해야 온 악령과 저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고 힌두 신도들은 믿는다. 사원 한켠에서는 제물로 바칠 염소를 칼로 쳐 죽이고 있었으며 그 피가 신전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똑똑 떨어져 있었다. 신전 앞에는 바라나시에서 떠왔음직한 갠지스 강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

(3) 평가 및 반성

수많은 신전을 돌아보았으나 깔리신전만큼 핏빛으로 물들어 있는 사원은 본 적이 없었다.

왜 사람들은 파괴의 신을 믿으려 하는 걸까.

마지막 날인만큼 가지고 있던 재정도 정리하고 여지껏 인도음식과의 전쟁을 치룬 모든 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남은 재정을 가지고 파크 호텔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했다. 레스토랑은 가지 못하고 예쁜 카페를 보고 들어가서 모두 행복해했으나 모든 팀원이 메인디쉬를 시킬만큼 재정이 충분치 않아 음료수도 못시키고 샐러드와 샌드위치를 시켜 기다리고 있었다. 미애자매와 란자매가 잠시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던 길에 한국인 한분을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한국에서 온 여행객이라는 말에 목사님이라고 당신을 소개하셨단다. 반가웠던 자매들이 한동대에서 온 아웃리치팀이라고 소개하자 목사님께서 한동대에 대해 알고 계셨던 터라 매우 반가워하시며 기자회견이 끝나신 후 뷔페가 있다며 뷔페로 초대해주셨다. 우리의 재정 없음을 아시고, 배고픔도 아시고 친히 인도해주시는 섬세한 하나님께 매우 감사하였다. 그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매우 섬세한 것에서부터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온 몸의 세포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아웃리치와 같은 기간에는 그 인도하심을 깨닫기 쉽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제치고 삶에 충실할때에는 그 음성을 단지 우리가 듣고 있지 않아서일 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은 동일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나눔을 가졌다.

뷔페장소에서는 한 힌두신도가 회심한 이후 목사님이 되어 전세계를 다니시며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26일 캘커타의 스타디움에서 말씀 집회를 가질 계획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장소였기에 그분을 만나뵙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집회를 위해 기도제목을 나누었다. 생명의 출판사에서 ‘한 힌두교도의 회심’이라는 책으로 그분의 이야기를 출간한 적이 있다. 한국인 목사님께서서는 캘커타 지역에서 오랫동안 선교하고 계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컨택하여 들어간 이경호 선교사님을 알고 계셨다. 캘커타 지역의 대장 목사님이시라고 한다.

싱가폴로 떠나는 비행기를 기다리던 대합실에서 호주에서 출발하여 인도 아웃리치를 들어왔던 OM 사역팀을 만나 한 비행기를 탔고 역시 캘리포니아에서 인도로 온 아웃리치팀도 한 비행기를 탔다. OM 팀을 만나 인도에 소망이 있음을 나누며 교제하였다. 주의 일하심은 열방을 향해 일어나며 열방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1월 26일

(1) 일정

04시 30분 싱가포르 도착
05시 30분 집사님 댁 도착
06시 00분 취침
11시 00분 기상
13시 50분 말씀 묵상
14시 30분 시내 & 식물원 & 시내 & 나이트 사파리
23시 00분 말씀통독, 예배

1월 27일

(1) 일정

08시 00분 기상
09시 00분 예배 및 아침식사
12시 30분 말씀묵상
13시 00분 센토사로 출발
20시 00분 집으로 도착 & 저녁식사
22시 00분 싱가포르 공항으로 출발
23시 50분 한국행 비행기 이륙

제 4장

리서치 보고서

땡그렁 거리는 시끄러운 종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얼핏 잠이 깨었다. 아침 해가 채 뜨기도 전, 졸음에 겨워 모두가 잠 들어있을 그 시간에 우리의 아침과는 사뭇 다른 바라나시의 아침은 이렇게 시작된다. 햇빛이 눈부신 맑은 날이면 갠지스강의 잔잔한 은빛 강물에 비치는 아름다운 햇살의 축복을 맛볼 수도 있다. 그럴 때면 빛의 도시, 카시 라고 불리는 바라나시를 비로소 실감하게 된다.

‘바라나시’ 라는 지명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에게도 ‘갠지스강’ 이라는 이름은 그리 낯설지 않을 것이다.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인 갠지스강은 히말라야에서 발원하여 하리드와르에서 평야지역으로 접어들고 지금의 알라하바드 근처의 뽀라야그 지역에서 아무나 강과 만난다. 바라나시는 갠지스강이 지나는 도시 중에 인도인들 사이에서, 특히 외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로 한 해 평균 방문객이 200만 명이 넘는다. 바라나시의 의미는 갠지스강의 의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부연하자면, 갠지스강의 의미가 바라나시라는 도시의 의미를 창조하고, 형성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그 의미의 가장 중심엔 인도를 지배하고 있는 종교, 힌두교가 있다. 즉, 힌두교는 바라나시와 갠지스강의 의미 부여에 가장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인도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하면 하나같이 ‘힌두’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인도 12억 인구의 80%가 넘는 사람들이 힌두교도들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라고 알려진 힌두교는 3억 3천만의 신을 섬기는 거대하고, 복잡한 종교이다. 창조의 신 브라만, 유지의 신 비쉬누, 파괴의 신 시바 등 이 세 가지의 신을 주(主)신으로 섬기는 힌두교는 우리의 생활에 생각 외로 훨씬 가까이에 있다. 현대를 지배하고 있는 다윈주의, 그 중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 적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인도인들에게 종교는 삶 자체이다. 그들의 생활 속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힌두교를 발견할 수 있다. 인디안 헬리콥터라는 별명을 가진 자전거 릅샤에 붙어 있는 신의 모양을 담은 그림에서부터 인도 대통령 궁의 조형물에까지 인도는 힌두교를 빼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

종교는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관여하고 있다. 그 예로 기독교는 천국을 말하고, 구원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단순한 죽음, 끝이 아니다. 크리스천에게 죽음은 육체의 죽음으로만 한정되며 우리의 영혼은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영원한 천국에 머물게 된다. 크리스천에게 구원과 천국은 값없이 주어진 은혜이다. 하지만 힌두교도들에게 죽음은 그들의 삶과 멀지 않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삶과 죽음이 직선 상에 있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면, 힌두교에서 말하는 삶과 죽음은 직선이 아닌 원이다. 바로 끊임없는 윤회의 연속인 것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삶과 죽음의 경계는 그리 뚜렷하지 않다. 힌두교도들은 840만 번의 윤회를 거쳐 한 번의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믿는다. 그들에게 이생은 전생과 후생을 이어주는 하나의 순간적이고 일회적인 다리에 지나지 않는다. 윤회의 끊임없는 고리를 반복하는 것은 이들에게도 고통이다. 더군다나 카스트라는 엄격한 종교적, 사회적 계급이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도에서 브라만, 그것도 남자로 태어나지 않으면 이들에게 사람으로 태어난 이생도 그다지 의미가 있지 않다. 840만 이라는 숫자는 힌두인들이 생각하는 세계의 모든 동물 종류의 수이다. 인도 길거리 어디에서나 마치 사람처럼 행세하는 소나 개들을 떠올려 본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윤회라는 법칙이 얼마나 그들의 사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힌두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기독교의 구원과 상당히 다른 개념이다. 이들에게 구원은 윤회의 사슬을 끊고 천상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천상으로 가는 계단, 그 구원의 계단이 바로 갠지스강이며, 바라나시이다.

힌두교도들은 흔히 갠지스강을 강가(Gangga)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강가는 힌도로 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신, 신성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갠지스강은 인도인들에게 천상에서 내려온 물줄기이다. 힌두교의 전설 속에 나오는 지상의 바라가트라는 왕이 비쉬누 신에게 천상의 물을 지상으로 내려줄 것을 기원한 결과 히말라야를 발원지로 하여 내려온 물이 바로 갠지스강이기 때문이다. 갠지스강이 지나는 도시 중 바라나시가 유명한 이유도 역시 신화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힌두교의 주신 브라만, 비쉬누, 시바가 힘을 겨뤘는데 이 과정에서 브라만을 죽인 시바는 그 죄를 씻지 못해 세상을 방황하던 중 바라나시에 와서 참회를 하고 그 죄를 용서받았다. 신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바라나시라는 생각은 갠지스강뿐만이 아니라 바라나시를 신성시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힌두교도들은 그들의 전 생애를 통해 삶과 죽음을 반복하며 윤회한다고 믿는다. 그들에게 갠지스강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갠지스강은 행위(까르마)에 의한 모든 죄와 그로 인한 윤회의 사슬을 벗어날 수 있게 해 주는 유일한 곳이다. 하루에도 200~300구가 넘는 죽은 자와 그의 후손들이 바라나시, 갠지스강을 방문한다. 죽은 자의 몸에 갠지스의 신성한 물이 닿는 순간, 그의 영혼은 천국으로 향한다. 따라서 힌두교도들은 죽어서 그 재가 갠지스강에 뿌려지는 것을 더할 나위 없는 영광으로 여기고, 일생에 한 번 들러서 몸을 씻는 것 만으로도 자기를 포함한 7대 조상까지의 죄가 씻어진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의 수식어가 필요 없는 은혜의 물줄기, 구원의 강물인 셈이다. 이러한 갠지스강에서 이루어지는 화장문화를 알아보고, 그들의 사후세계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는 것은 따라서 굉장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바라나시의 골목골목을 지나다니다 보면 본의 아니게 죽음의 행렬과 마주치게 된다. ‘람 사테헤 (라마신은 아십니다)’ 라는 구호를 외치며 갠지스강으로 향하는 이 화려한 행렬은 현실에서 죽음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장면이기도 하다. 화장 문화는 아리아인들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다. 인도에서 시체를 매장하는 것은 천한 카스트들만이 하는 것이다. 힌두교도가 죽으면 시신의 입에 갠지스강에서 떠다 놓은 성수를 붓고 흰옷으로 갈아 입힌 후 그 위에 오렌지색이나 초록색, 또는 붉은색의 천을 덮는다. 이 천은 색깔에 따른 특별한 구분은 없다. 그리고 그 시신 위에 간단한 꽃 장식을 한다. 이 때

상주(The chief Mourner)는 목욕을 하고 그의 콧수염과 머리를 깎는데 이는 모든 악귀와 오염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이다. 머리를 다 삭발하지만 특이하게도 머리중심은 마치 뽕지처럼 남겨둔다. 머리 중심에 머리카락을 남겨 두는 것은 인간의 정령이 통과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장례 준비가 끝난 시신은 ‘타트리’라고 하는 대나무 들 것에 실려 화장터로 운구된다. 시신을 관대에 올릴 때에는 발을 쥔 먼저 옮긴다. 그 이유는 영혼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이다. 상주는 재로 가득 찬 항아리를 들고 들것을 따라가며 두 번째 상주(The second mourner)는 들것이 가는 길에 음식을 뿌리는데(대부분 쌀이다) 이는 나쁜 영혼들을 달래기 위해서이다. 운구 될 때 유족들과 친지, 마을사람들은 “람 람 사테헤”라고 외치며 시신의 뒤를 따르게 되는데 화장터까지 여자는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화장할 시신은 갠지스강에 잠깐 담겼다가 꺼낸 후 나무 단 위에 올리는데, 그 때 얼굴을 보이게 한 후 그 얼굴에 직접 물을 뿌린다. 화장할 때 쓰이는 나무는 집안 어른이 구입하게 되는데 재산의 정도에 따라 나무의 양이 정해진다. 시신이 반도 타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양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형편도 되지 않으면 밤에 시신을 갠지스강에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준비된 나무 단 위에 들것에서 내린 시체를 올리는 데 그 머리를 허말라야 방향으로 둔다. 이 때 상주가 시신 주위를 해가 도는 방향으로 7바퀴 돌며, 쌀, 꽃, 향료 등을 뿌리고 불을 붙인다. 화장하는 동안 인부는 시신을 이리저리 뒤적이며 소각시킨다. 이렇게 시작된 화장이 완전히 마무리 되기까지는 약 5~6시간이 소요되며, 불길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는 항아리에 갠지스강의 물을 채워 전달하여 마지막으로 유가족이 있는 곳까지 전달한다. 그리고 나서 그 물을 거의 꺼져 가는 장작과 남은 뼈 위에 뿌린다. 그 작업을 반복하다가 마지막에는 상주가 뒤 돌아서서 항아리 자체를 장작더미 쪽으로 던져 깨뜨린다. 그런 다음 다 타지 못한 뼈를 골라 갠지스강에 버리고, 다른 남은 뼈와 재를 골라내어 강에 뿌린다. 화장이 끝난 후 망자에 대하여 갖는 제사 따위의 의식은 없다. 죽은 후 13일째 되는 날 친지들이 모여 ‘프리오도시’라고 하는 만찬을 즐기며 망자를 회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유일하다. 힌두교의 화장의식에는 눈물이 없다. 이들에게 갠지스강에서 화장을 한다는 것은 제일 커다란 축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갠지스강은 시신을 까다롭게 취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과부 및 임산부, 어린아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 코브라에 물려 죽은 사람들은 화장하지 못하며 미리 준비된 큰 돌 판을 매달아 수장한다. 즉, 갠지스강에서 화장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장 평안하게 죽은 사람들뿐인데 병에 걸려 치료 받은 사람도 신의 뜻을 거스렀다고 해서 제외시킨다. 갠지스강은 신이 배푼 가장 큰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이로써 우리는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 처음 힌두교를 알았을 때, 윤회라는 사슬이 끝없이 반복되는 이들의 사상에 과연 ‘구원’이라는 개념이 존재할까 라는 근원적인 의문을 가졌었다. 이들에게도 구원에 이르는 길은 있다. 신의

지식을 완벽히 깨달아 아는 간 마르그에 이를 때, 신에게 완벽한 믿음을 보일 때의 바띠 마르그, 마지막으로 신이 사람을 창조할 때의 계획에 따라 완벽한 삶을 살아갈 때 도달하는 까르 마르그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이들도 윤회의 사슬을 끊고 이들이 말하는 천상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위에서 보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개념은 매우 현학적이고, 추상적이다. 힌두교도들에게 ‘은혜’라는 개념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들에게 있어 구원의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의 틈이 있다. 그것이 바로 갠지스강이다. 이들에게 갠지스강은 헛될지언정 은혜의 통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9절)” 다만 이들의 회심을 위해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의 참 의미이다. 그런 뜻에서 갠지스강은 은혜로 거저 주신 구원의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기에 충분하다. 하나님이 계획대로, 그 말씀으로 창조된 아름다운 갠지스강. 지금은 더러운 오물과 거짓된 생각들이 그 강을 흘러가고 있지만 태초의 아름다운 본질을 하루 속히 회복하길 기도한다.